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07. **7** Vol. 187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영원한 문화 게릴라 연극인 이윤택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_ 윤용하<<보리밭>>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전통악기에 담겨진 사상과 철학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이탈리아



상생 2007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II



지휘: 박 호 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가야금: 이 명 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노래: 박 성 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노래: 정 선 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연주곡목

- 창작관현악 [산야(山野)] - 부산초연
- 25현 가야금협주곡 [바람강] - 부산초연
- 창작관현악 [창구만들기 (바람, 빛)] - 부산초연
- 노래와 관현악
크랑, 크하늘 / 천지에 천지에 /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 창작관현악 [산곡]

주 최 부산광역시

후 원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콜센터 1588-2528

2007. 7. 5 (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 625-8130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 607-6070 www.bsulture.busan.go.kr

부·울·경을 연결하는 음악 네트워크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음악회

2007 PBC TUESDAY CONCERT

여름음악축제

SUMMER MUSIC FESTIVAL

월	일	요일	시 간	공 연 명
7	3	화	오후 7시 30분 / 9시	시사이코리아 인카음악축제 SisayKorea Inca-Music Festival 〈구전심수 口傳心授〉
	10	화	오후 7시 30분	다비드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David Chamber Orchestra 〈재즈 JAZZ〉
	17	화	오후 4시 / 7시 30분	남성성악앙상블 4+1 초청연주회 4+1 Male-Vocal Ensemble 〈나폴리 민요의 밤〉
	19	목	오후 7시 30분	새음악회 제2회 정기연주회 The Society of New Music's 2nd Concert 〈젊음과 패기의 여름밤 음악여행〉
	24	화	오후 4시	With Ensemble 〈플루트는 나의 삶 Flute is my life〉 Summer Flute Festival
	24	화	오후 7시 30분	플루티스트 이하룡, 이상창, 김인호, 윤진주와 함께하는 앙상블의 밤 〈The Magicflute〉 Summer Flute Festival
	31	화	오후 4시	플루티스트 김인호 정병태 듀오콘서트 Flutist KIM In-ho, JUNG Byung-Tae Duo Concert 〈디 플레데르마우스 Die Fledermaus〉 Summer Flute Festival
8	31	화	오후 7시 30분	그레도 플루트 트리오 초청연주회 Credo Flute Trio Concert 〈뮤지킹 위드 그레도 Musicing with Credo〉 Summer Flute Festival
	7	화	오후 4시 / 7시 30분	피아니스트 공소현 김미연의 포핸즈 Pianist KONG So-Hyun & KIM Mi-Yeon's 1Piano 4hands 〈일 바치오 콜 피아노 에 포르테 IL BACIO col piano e forte〉
	14	화	오후 4시 / 7시 30분	소프라노 권선아 조영희 조인트리시탈 Soprano KWON Seon-a CHO Young-Hee Joint Recital 〈꽃보다 아름다운 어울림〉
	21	화	오후 4시 / 7시 30분	국악트리오 진달래 초청연주회 Kuk-ak Trio Jindalae 〈국악으로의 워킹〉
	28	화	오후 7시 30분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단 특별초청연주회 Busan Brass Quintet 〈매직 브라스 Magic Brass〉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공동주최 가톨릭센터 PBC 부산평화방송 후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성모병원 메리병원

2007. 7. 3(화) ▶ 2007. 8. 28(화)

새롭게 단장한 가톨릭소극장 051-462-1870
www.bccenter.or.kr

이 음악회는 라디오 FM(부산·경남 FM101.1, 울산 94.3MHz)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실황녹음 방송됩니다.

www.birdclassic.co.kr

PBC 화요음악회 녹음은 클래식음악 녹음전문기업 Bird Classic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www.birdclassic.co.kr

이제 자신의연주를 음반과 DVD로 소장하십시오!

클래식 연주자들이 바라던 클래식 전문 녹음실 & 촬영 스튜디오
연주 실황 녹음 · 음반 녹음 · 교수 연구실적 녹음
연주 실황 촬영(DVD, SVHS) · 콘서트 촬영

051-744-1150 / 011-562-8773

BIRD Classic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센텀벤처타운 504호

2007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

선녀와 나무꾼



2006. 여름마당춤판 **男 콩쥐 vs 팔쥐** 리뷰

2층이라 무대위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으나 자리에 앉아 어깨춤이 절로 덩실덩실... ^^ - 민성미

너무 신명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끝나고도 한동안 객석을 떠나지 못했어요. 사실 아이보다 엄마인 제가 더 반했죠. - 박혜경



서울에 비해 부산의 공연 문화가 열악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공연을 소개해 주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 이윤이

아름다운 춤사위와 역동적인 소리, 그리고 관객들이 어우러진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박송이

거침없이 카리스마를 보여주신 모든 무용단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박성하

2007. 7. 19(목) 20:00

부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우천시 중극장 / 선착순 입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협찬**

 문화의 경음이 들려오는 이맘때 **부산의 문화마을 하늘재**



무료

문의 부산문화회관
625-8130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607-6118, 6120
WWW.koreanfolkdance.com

Contents

2007 · 07



- 06 부산문화회관 7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기적의 새날 · 김용호
- 12 반갑습니다 | 영원한 문화게릴라 연극인 이윤택
- 15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 윤용하 <보리밭> · 김상훈
-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 홍승현
- 22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전통악기에 담겨진 사상과 철학 · 강성일
- 24 우리춤 산책 | 한량무 · 흥기태
- 26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여름 숲으로 가서 <남궁정화-In the garden> · 김형술
- 28 연극속으로 | 자연과 인위 · 유상홍
- 30 그곳에 가면 | 다리밋(meet) 예술장터
- 32 우리 문화 가족 |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
- 34 지금 준비중 | 강희정 공모 프로젝트 '몬스터'
- 36 이 사람 | 시카고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 단장 오신애
- 38 문화가 화제 | 2007 부산국제해변무용제
- 40 쉽게 듣는 클래식 | 소품의 세계 · 광근수
- 41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 44 7월 프로그램 가이드
- 61 세계의 뮤지컬 | 캣츠 · 이상훈
- 62 새로 나온 음반
- 63 새로 나온 책
- 64 부산문화회관 소식
- 6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9 100자 토크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대연 4동 848-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7년 6월 25일
- 인쇄처 (주)세한기획 TEL. 865-0080, FAX. 852-7085 614-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63-4 하이웰 B/D B1층
- 표지설명 : 한국의 전통적인 동화와 설화를 해학과 신명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재구성,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부산시립무용단의 2007년 여름마당춤판 '선녀와 나무꾼'이 7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7** 월 공연일정

전시실

- 제 7회 부산청년서예인협회 정기회원전 - 대전시실**
 7월 7일(토)~7월 11일(수) (*7월 17일 전시오픈 오후 5:00)
문의 부산청년서예협회(853-9295, 011-9235-9295)
- 제 2회 대한민국 최고서화예술대전 - 대, 중전시실**
 7월 19일(목)~7월 21일(토)
문의 최고서화예술협회(806-4294~5, 019-546-9913)
- 제 13회 부산서예대전 - 대, 중전시실**
 7월 23일(월)~7월 28일(토)
문의 (사)한국서예협회부산지회(331-0556, 011-556-2947)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안내 : 59쪽)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 1 KNN 창사 12주년 기념 '노래를 찾는 사람들' 특별공연
14:00, 18:00 3만원 · 2만원/KNN(850-9250)
- 2 노엘합창단 제 47회 정기연주회 재미 지휘자 박정기 초청
세계명성가곡의 밤 19:30 노엘합창단(622-0224)
- 3 기드온콰이어 제 11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3만원/이충성(010-4872-8701)
- 4
- 5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6회 정기연주회-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
악회Ⅱ '2007 상상'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관현악단(607-6110)
- 6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 MBC(760-1125)
- 7
- 8
- 9
- 10 2007 부산무용제 19:30
1만2천원 · 8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 11 2007 부산무용제 19:30
1만2천원 · 8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 12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7회 정기연주회 '클래식 속의 문학'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
- 13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축하연주회 19:30
부산 MBC(760-1125)
- 14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 15 대극장 무대 공사기간입니다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중극장

MEDIUM THEATER

- 1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정성철(627-8088, 011-565-8088)
- 2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00
초대/임준오(816-1104, 011-842-1133)
- 3  뮤클 합창단 제 3회 정기연주회-대관식 미사/레미제라블 19:30
균일 5천원/이상훈(010-3135-0423)
- 4  주부들을 위한 해설음악회-女時 '6080 추억음악회 시리즈' 11:00, 행복한 엄마를 위한 태교음악회 '해피미마 콘서트' 15:00
2만원/유엔터테인먼트(02-875-1627)
- 5 
- 6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 MBC(760-1125)
- 7  김진희& 김문주 피아노 듀오 연주회 19:30
초대/예술기획(055-700-9798)
- 8  소평의 밤 19:30
초대/김태윤(010-7740-0845)
- 9  7월의 The Beautiful Concert 갈라콘서트 19:30
균일 1만원/부산오페라연구소(010-3038-7191)
- 10 
- 11  내 아이의 첫 번째 오페라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18:00, 20:00
4만5천원 · 2만5천원 · 1만5천원 · 1만원/부산오페라연구소(747-1567, 010-3038-7191)
- 12  내 아이의 첫 번째 오페라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18:00, 20:00
2만5천원 · 1만5천원/부산오페라연구소(747-1567, 010-3038-7191)
- 13  내 아이의 첫 번째 오페라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16:00, 20:00
2만5천원 · 1만5천원/부산오페라연구소(747-1567, 010-3038-7191)
- 14  제 3회 한국 청소년 합창 콩쿠르 및 수상팀 공연 'Sing Youg Dream'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
- 15  심현숙 발레단 한 · 일 발레교류공연 18:00
무료/심현숙(753-5080, 017-857-5080)
- 16 
- 17  체코 필하모닉 소년소녀합창단 내한공연 15:00,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파가티코리아(031-704-0433)
- 18  예술기획 초청 SIS 앙상블 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예술기획(055-700-9798)
- 19  부산시립무용단 2007 여름야와 마당출판 '선녀와 나무꾼' (야외무대, 우천시 중극장)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20 
- 21  극단 예인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12:00, 14:00, 16:0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퀵/웹스테이지(1588-0881)
- 22  극단 예인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12:00, 14:00, 16:0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퀵/웹스테이지(1588-0881)
- 23  부산아마추어 부산클라리넷 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손호성(011-583-2810)
- 24  팝음악평론가 임진모와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팝합창'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1)
- 25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 26  중극장 무대 공사기간입니다
- 27 
- 28 
- 29 
- 30 
- 31 

소극장

SMALL THEATER

- 1 
- 2  대연음악회 19:00
초대/대연음악원(621-7921)
- 3 
- 4 
- 5  클래스 연주회 19:00
무료/최인화(627-4758, 010-4845-4758)
- 6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 MBC(760-1125)
- 7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8 
- 9 
- 10 
- 11 
- 12  D&P 뮤직스쿨 정기연주회 '한여름밤의 멜로디' 19:30
무료/김정우(704-3999, 010-5633-0864)
- 13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 14  소극장 무대 공사기간입니다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부산시내 기타공연 7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4:00, 16:00 - 소극장
균일 1만5천원/극단 심인(031-499-6658)
- 2
- 3
- 4
- 5
- 6
- 7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3:00, 15:00 - 소극장
균일 1만5천원/원스테이지(1588-0881)
- 8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3:00, 15:00 - 소극장
균일 1만5천원/원스테이지(1588-0881)
- 9
- 10 독도사랑 가요제 14:00 - 소극장
무료/최덕찬(02-546-5742)
- 11
- 12
- 13 주부들을 위한 해설음악회 '女時' 11:00 - 소극장
태고음악회 '해피 마마 콘서트' 15:00-소극장 유엔터테인먼트(02-8765-1827)
- 14 부산진구 청소년 어울마당 10:00, 11:00 - 소극장
초대/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805-31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유U: 콘서트 11:00 - 대극장
균일 1만5천원/시민회관(630-5200)
- 25
- 26
- 27
- 28 키보이스 콘서트 15:00, 19:30 - 대극장
5만원 · 4만원 · 3만원/시민회관(630-5200)
- 29 JK양상불과 함께하는 해설음악회 14:00, 17:00 - 대극장
균일 1만원/시민회관(630-5200)
- 30 월요일화 '슈렉 3'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31 월요일화 '슈렉 3'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금정문화회관

[문의 : 금정문화회관(510-5051~2)]

- 1 브레멘 동물음악대 14:00, 16:00 - 소공연장
균일 1만원/가람공연기획(626-6664)
- 2
- 3 이성은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이성은(010-7580-0612)
- 4 금정수요음악회 '다비드첼머오페스트라 인 재즈'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 5
- 6 부산신포니에타 제 59회 정기연주회 19:30 - 대공연장 김영혜(011-9519-0448)
테너 장호진 초청 독창회 19:30 -소공연장 초대/손욱(011-9520-4649)
- 7 인형뮤지컬 '청개구리' 12:00, 14:00, 16:00 -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극단 현울(1544-1718)
- 8 인형뮤지컬 '청개구리' 12:00, 14:00, 16:00 - 소공연장
균일1만2천원/극단 현울(1544-1718)
- 9 원영아 클래스 정기연주회 19:30 - 소공연장
초대/가람공연기획(626-6664)
- 10 한여름 밤의 음악회 19:30 - 대공연장 무료/임병원(620-4917)
부산무즈플랫폼을 정기연주회 19:30 - 소공연장 백인애(017-590-4656)
- 11 금정수요음악회 '멜로디어린이합창단 연주회' 19:30 -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 12 소프라노 최선희 독창회 19:30 - 대공연장 클래식 아트메니저(624-1991)
양상불 클라시카 브런치 콘서트 11:00 - 소공연장 양상불 클라시카(506-6306)
- 13 가족뮤지컬 '갈리버 여행기' 10:10, 11:20 -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DIBU기획(02-2654-6854)
- 14 가족뮤지컬 '갈리버 여행기' 12:00, 14:00, 16:00 -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DIBU기획(02-2654-6854)
- 15 친정엄마 15:00, 18:00 - 대공연장 (주)ANSITE(1644-4484)
가족뮤지컬 '갈리버 여행기' 12:00, 14:00, 16:00 - 소공연장
- 16 친정엄마 16:00, 20:00 - 대공연장
5만5천원 · 4만4천원 · 3만3천원/(주)ANSITE(1644-4484)
- 17
- 18 금정수요음악회 '임지민 바이올린 독주회' 19:30 -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 19 교사오페스트라 에듀빌 정기연주회 19:30 - 대공연장 양미향(011-9537-9303)
인세남매 플루트양상불 정기연주회 19:00 - 소공연장 김미정(018-406-6169)
- 20
- 21 가족뮤지컬 '캣츠2' 12:00, 14:00, 16:00 - 대공연장 원스테이지(1588-0881)
인형아 친구하자 14:00, 16:30, 19:00 - 소공연장 강민영(010-3156-3373)
- 22 가족뮤지컬 '캣츠2' 12:00, 14:00, 16:00 -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원스테이지(1588-0881)
- 23 스트로크 타악기양상불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 대공연장
균일 1만원/윤현욱(010-4584-1083)
- 24
- 25 금정수요음악회 '기타리스트 김윤섭 재즈콘서트' 19:30 -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 26 남성 성악양상불 4+1 정기연주회 19:30 - 대공연장
균일 1만원/서명보(010-2400-3994)
- 27 부산신포니에타 영 비루투오스 데뷔콘서트 19:30 - 대공연장
초대/김영혜(011-9519-0448)
- 28 에타레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11:00, 14:00, 16:30 -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최지현(011-594-9124)
- 29 2007 부산기타페스티벌 18:00 - 대공연장
1만5천원 · 1만원/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불(011-9342-0524)
- 30
- 31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음악은 내친구' 17:00 - 대공연장
균일 2만원/손욱(011-9520-4649)

울속도문화회관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321~2)

1	sun	
2	mon	
3	tue	
4	wed	
5	thu	제 5회 울리앙 정기연주회 19:00 -소공연장 초대/한태선(016-831-1109)
6	fri	
7	sat	클라라 정기연주회 19:00 -소공연장 초대/양성희(010-6316-1617)
8	sun	
9	mon	
10	tue	
11	wed	
12	thu	
13	fri	
14	sat	토요뮤직캠프 11:00 -소공연장 균일 2천원/울속도문화회관(220-5321) 제 2회 푸르미앙 정기연주회 18:30 -소공연장 초대/강소영(011-9549-4328)
15	sun	
16	mon	
17	tue	
18	wed	
19	thu	■ 전시일정 6월 28일(목)-7월 7일(토) 부산환경미술협회 기획전
20	fri	7월 13일(금)-7월 19일(목) 사하미술인 전람회
21	sat	7월 23(월)-8월 3일(금) 부산시립미술관 이동미술관 본 회 울속도 문화회관(220-5321~3)
22	sun	
23	mon	
24	tue	
25	wed	
26	thu	보고싶은 영화감상 19:00 -소공연장 초대/울속도문화회관(220-5321~3)
27	fri	찾아가는 국악원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 19:00 -대공연장 무료/울속도문화회관(220-5321~3)
28	sat	토요뮤직캠프 11:00 -소공연장 균일 2천원/울속도문화회관(220-5321) 김경균의 '판죽' 20:00 -야외놀이마당 무료/울속도문화회관(220-5321~3)
29	sun	
30	mon	
31	tue	

해운대문화회관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1	sun	
2	mon	
3	tue	
4	wed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19:3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오페라단 가야(747-6139)
5	thu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19:3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오페라단 가야(747-6139)
6	fri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19:3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오페라단 가야(747-6139)
7	sat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17:0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오페라단 가야(747-6139)
8	sun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17:0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오페라단 가야(747-6139)
9	mon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19:3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오페라단 가야(747-6139)
10	tue	연극 '바리데기' 20:00 -대공연장 2만원 · 1만4천원 · 5천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1)
11	wed	
12	thu	
13	fri	
14	sat	마당극 '강' 15:00, 19:00 -대공연장 2만4천원 · 2만원 · 1만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1)
15	sun	마당극 '강' 15:00, 19:00 -대공연장 2만4천원 · 2만원 · 1만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1)
16	mon	
17	tue	
18	wed	한 여름 밤, 음악의 열정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4천원 · 5천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1)
19	thu	
20	fri	가족뮤지컬 '플란다스의 개' 10:20, 11:20 -대공연장 균일 1만5천원/문화예술기획 아트씨티(080-050-3355)
21	sat	가족뮤지컬 '플란다스의 개'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5천원/문화예술기획 아트씨티(080-050-3355)
22	sun	가족뮤지컬 '플란다스의 개'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5천원/문화예술기획 아트씨티(080-050-3355)
23	mon	
24	tue	극단 포구 '패션 오브 빌라도'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극단 포구(632-4550, 010-8831-1958)
25	wed	극단 포구 '패션 오브 빌라도'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극단 포구(632-4550, 010-8831-1958)
26	thu	극단 포구 '패션 오브 빌라도'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극단 포구(632-4550, 010-8831-1958)
27	fri	
28	sat	댄스컬 '여자, 사랑에 미치다' 20:0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크레용댄스프로젝트(010-7703-7969)
29	sun	댄스컬 '여자, 사랑에 미치다' 17:00, 20:00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이대건(010-7703-7969)
30	mon	
31	tue	2007 청소년을 위한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15:00, 18:0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퓨전시나위 예타래(011-594-9124)

기적의 새날

김용호 · 영산대학교 연기연출학과 교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꿈꾼다. 로또복권의 인기가 전보다 시들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박을 꿈꾸는 로또매니아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꽤 막힌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당장 큰돈 투자하지 않고 인생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은 확률이 아무리 낮다해도 뿌리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다.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밤새워가며 머리를 짜내는 사람을 보면서 차라리 그 시간을 좀더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라고 충고한 적이 있는데 소귀에 경읽기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기적같은 역전이나 대박을 꿈꾼다.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러울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막상 기적이 일어나도 행복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복권당첨자들의 후일담을 조사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대박의 꿈을 이룬 대부분의 복권당첨자들은 이혼하거나 돈문제로 가정파탄을 겪었다고 한다. 복권 당첨 전보다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는 기사를 보고 나 역시 조금은 씁쓸한 기분이 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골레처럼 나를 움아매고 있다고 느껴지고 한없이 자신의 삶이 누추하게 느껴질 때 나는 오래 전 읽었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불만인 한 젊은이가 있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견딜 수 없었던 젊은이는 기적을 보고 싶었다. 그는 어느 날 날마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도인이 '도중도'라는 외딴 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젊은이는 그 섬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포구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바다에는 폭풍경보가 내려져 있었다. 젊은이는 여인숙을 찾아갔는데 도중도에 산다는 한 노인과 합숙해야 하는 방을 하나 구할 수 있었다. 젊은이는 지루하고 답답해서 낮잠을 한숨 늘어지게 잤다. 노인을 찾아보니 노인은 개울가에서 숙것이며 양말 등숙을 빨고 있었다.

“날씨가 나쁜데 무슨 빨래를 합니까?”

“빨래는 바람에 더 잘 마르는 걸요.”

젊은이는 선술집에 가서 술에 젖어 돌아왔다. 노인은 옷목의 씨고구마 등이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것은 주인네가 할 일이 아닙니까?”

“누가 하든 우리의 생명을 늘이는 일인걸요.”

노인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드디어 사흘만에 날이 개었다. 여인숙을 나서며 노인은 젊은이에게 왜 섬에 가려는지 물었다. 젊은이는 날마다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도인을 만나러 간다고 대답했다. 노인은 선창쪽으로 발을 옮겨 놓으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미 기적을 보았소이다. 어디서나 지금에 최선을 다하여 의롭게 살면 그날이 곧 기적의 새날이요, 그렇지 못하면 반복의 묵은 날입니다. 이번에 나와 함께 지낸 사흘이 당신이 보고자 한 그 노력의 전부이니 따로 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시구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날마다 새로운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전 생애가 기적처럼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매일의 삶을 마지못해 되는 대로 살아버린다면 인생은 지겨운 반복의 묵은 날일뿐이다.

결국 기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당첨 확률 없는 로또에 목매달기 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적을 오늘 내 삶에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쉬운 일상탈출의 길 아닐까. 왜 사람들은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에 더 집착하는 것일까.

가끔 풀밭에 나가면 너도 나도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내 책갈피에도 어렵게 찾아낸 ‘행운’의 네잎클로버가 곱게 말려 꽃혀 있다. 하지만 지천에 널려 있어 우습게 생각했던 세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네잎클로버 찾는 일이 시들해졌다. 지천에 널려있는 소중한 ‘행복’은 외면하고 뜻밖의 ‘행운’ 찾기에만 골몰하는 일이 웬지 어리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행복’을 무심히 짓밟고 있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내 발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섬뜩함을 잊을 수 없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것이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활짝 웃어줄 수만 있다면 기적은 시작된 것이다.

나는 그저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적을 만들며 살고 싶다. 내가 매일 만드는 작은 기적들이 나에게, 가족에게, 세상에 로또복권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영원한 문화계릴라 연극인 이윤택



시인이자 극작가, 연출가로 우리 문화계에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이윤택 씨가 5월 25일 제 27회 이주홍 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이윤택 공연대본전집'을 내고 향파 이주홍 탄생 100주년을 맞아 희곡 '탈선춘향전'을 연극으로 만든 것이 큰 점수를 받았다.

1986년 부산에서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하고 가마골소극장을 개관, 부산에서 연극 활동을 시작한 이윤택 씨는 극작, 연출, 연기훈련 등 무대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작업을 통해 1990년대 한국 실험연극의 기수로

활동했다. 이윤택의 연극은 언제나 '그가 만들면 다르다'는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요즘은 지난해 초연 이후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화성에서 꿈꾸다'로 이윤택표 연극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윤택은 연극인이기 이전에 1979년 '현대시학'으로 시단에 나온 '시인'이다. 시집 '시민' '춤꾼이야기' '막연한 기대와 몽상에 대한 반역' '밤의 사랑'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1980년대 전후 발간했던 4권의 시집을 정리하여 '나는 차라리 황아이고 싶다'라는 시선집을 펴내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서울예술단 대표로 부산과 밀양연극촌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이윤택 씨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 늦었지만 이주홍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주홍 문학상은 선생님의 다른 상들과는 다른 상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주홍문학상은 제 3회 대신문학상(1996년 희곡부문) 이후 두 번째 받은 문학상이고,

모두 희곡부분으로 받았습니다. 희곡이 문학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기쁘고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국문학과 독일문학은 시, 소설 보다 희곡문학이 더 고전적 가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우리의 희곡문학이 빈약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수상은 한국희곡작가들에게 문학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이주홍 선생도 만일 독일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다면 더 높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겁니다.



이운택은 1990년 발표한 '오구'로 '오영진 이후 최대의 한국적 극작가'란 평가를 받았다.

▶ 향파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남포동 좁은 술집에서 몇 번 만나 문학적 자유방담을 경청한 적이 있습니다. 문학적 방담이라기보다 세상 속에서 얻는 쓸쓸한 재미와 에피소드가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었지요. 다정다감하고 익살스러우신, 대단히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 7월 밀양에서 공연하는 탈선춘향전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지난해 이주홍 선생 탄생 백주년을 맞아 이주홍 작 <탈선춘향전>을 막 올렸는데, 부산 서울 밀양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주홍 선생의 소설 <탈선춘향전>에서 뒷부분을 보완하여 올해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에서 다시 막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주홍 작, 이운택 대본·재구성·연출 <탈선춘향전>입니다. 이 기간에 문인들을 초청하여 문학 간담회라도 열려고 합니다.

▶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생님 소개에 '게릴라'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습니다. 당시와는 사회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게릴라'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는지요.

= 20세기의 게릴라는 사회적 적들과 제도적 관습에 대한 비주류적 저항이었지요. 제가 부산 출신이고 제도적인 문학 연극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었지요. 그러나 제가 국립극단 예술감독이 되면서 문화 게릴라가 아니라 제도권 연극의 사령관이란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문화 게릴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21세기의 게릴라전은 분명한 적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돌아가는 세상,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예술의 본질을 고수하려는 자들은 모두 게릴라일 수밖에 없고, 지금 이곳의 게릴라전은 더욱 외롭고 압당한 싸움입니다. 그만큼 치열하겠지요. 그 점에서 저는 영원한 현역 문화 게릴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 작품 중 큰 전환이 된 작품이나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1990년 <오구>를 쓰고 연출하면서 한국 전통의 맥을 이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걸 제게 하늘이 내려준 행운이었지요. 예술은 결국 개인적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지요. 몇 천년을 이어오는 조상들의 삶과 상상력의 젖줄을 누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예술의 전통성이 부여되지요. 그 점에서 <오구>는 저를 '오영진 이후 최대의 한국적 극작가'란 평가를 받게 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결국 조상덕이겠지요.

▶ 1986년 개관한 가마골소극장이 지난해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반기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가마골소극장을 전문 극장 기획 경영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가마골소극장은 연희단 거리패의 소극장이 아니라 다양한 소극장 연극이 공연되는 부산의 소극장이 되었지요, 그러나 연희단 거리패의 작업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올해 저의 신작 연출 작품 로르카의 <피의 결혼>이 9월 가마골 소극장에서 초연되고, 이윤주 연출의 신작공연 <비보이의 꿈>, 남미정 연출의 신작 공연 <서편짜리 오페라>가 올 가을 계속 공연됩니다. 그 외에도 올 10월 제가 쓰고 연출한 창작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잘하면 <오구>나 <어머니>도 부산에서 공연될 것 같습니다.

▶ 지금 구성하고 있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헌화가>를 동시대의 연극으로 구상 중인데, 내년쯤에나 선을 보이겠지요.

▶ 선생님 창조의 원천은 '시'라고 하셨는데 부산에서 시상이 절로 떠오르는 특별한 선생님만의 장소는?

=부산은 내 고향이고, 나는 내 고향 부산을 내 가슴 속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 속 주머니가 시의 원천이지요. 부산에 가면 꼭 들르는 곳이 광복동 거리인데, 그곳에서 내 젊은 문청시절을 다 보내었지요. <오아시스> <전원> <무아> <백조> 같은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다방과 음악실이 내 상상력의 집이었지요. 이제 그런 낭만적인 찻집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국제시장통에서 옷 사입고, 광명당 안경점에서 안경 맞추고, 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후원자인 허택의 평화치과에 가서 씌는 이빨을 고칩니다.

윤용하의 〈보리밭〉

김상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둘러봐야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놀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



윤용하의 생전모습

가곡 '보리밭'은 박화목 시인의 시에 작곡가 윤용하 선생이 곡을 붙인 것이다. 이 노래는 1970년대에 가장 널리 애창되었던 우리 가곡 중 하나이다.

윤용하는 1922년 황해도 은율(殷栗)에서 태어났다. 교회에서 독학으로 오르간과 작곡이론을 학습한 후 만주 신경(新京)음악원에 들어가 음악의 기초과정을 닦고 동음악원을 수료한 후 신경과 봉천(奉天)을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해왔다.

봉천에서는 조선합창단을 조직하여 3~4회에 걸쳐 발표회를 가졌고 그의 자작인 교성곡 '조선의 사계'를 봉천방송국 관현악단의 반주로 방송하고 별도의 연주회도 가진 바 있다. 이 합창단의 단원이었던 오현명씨는 윤용하 선생의 다른 가곡 '독백' 등을 노래했다.

그후 그는 봉천을 떠나 신경으로 옮겨 계속 작곡발표회를 갖는 등 음악활동을 해왔으나 일제 말기 징병으로 전지(戰地)로 끌려가던 도중 탈주에 성공, 간도(間島)에 피신해 있었다. 이때 간도사범학교에서 잠시 교사생활을 하다가 8·15광복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와 함흥 영생여중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후 월남해서 서울 한양공고, 동북고교 등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는 한편 가곡과 동요곡 등을 발표해 왔다. 6·25동란이 일어나자 부산으로 피난하여 동래에서 살면서 갖은 고난을 겪었으나 그의 작품 활동

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유명한 가곡 '보리밭' (1952)은 이 시기의 소산이다.

윤용하 선생은 시인 박화목과 매일같이 대포집에서 만나 시와 음악이야기로 밤을 세우면서 피난살이의 고달픔을 달래었는데 어느 날, 윤용하는 박화목 시인에게 시 몇 편을 요구했다. 다음날 시인은 '옛 생각'이라는 시를 주었고 작곡가는 이 시를 들고 천막집으로 돌아간 지 며칠 후 "〈옛 생각〉이 〈보리밭〉으로 바뀌었어"로 쓴 악보를 내 놓고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시인 박화목은 자기 시와 윤용하의 가락에서 애달픔과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맑고 고운 정감에 전율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가사를 붙여 몇 번이고 되풀이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가곡탄생을 위한 촉매를 나누었다. 젊은 두 보헤미안은 감격에 열싸안고 밤새 막걸리를 통음했다. 이것이 가곡 〈보리밭〉의 역사적 탄생기이다.

피난생활의 가난과 시달림 속에서도 한 가닥 꿈을 간직한 채 자기고독을 달래려고 노력한 작곡가의 심경은 만인의 가슴을 울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4/4박자로 된 이곡은 가사음절에 따라 점 2분 음표와 온음표를 주축으로 삼아 보리밭의 더 넓은 서정을 그리면서 회고와 동경이 어린 유연한 가락으로 곡을 매듭짓고 있다.

마지막 음절의 첫 소절 노랫말이 '돌아보면'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둘러봐야'로 불러져야 넓은 들녘 끝의 여유롭고 유장한 맛이 살아날 것이다. 박화목 시인의 시집 '꽃잎파리가 된 나비' 64페이지에 보면 본래는 '둘러봐야'로 되어있다.

윤용하 작곡의 노래 가운데 '나무잎 배'라는 동요가 있다. 박흥근 시인의 동시에다 윤용하 선생이 작곡을 한 것인데 가사가 매우 서정적이면서도 가락이 경쾌해서 많이 애창되고 있다.

“낮에 놀다 두고온 / 나뭇잎배는 /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 푸른 달과 흰구름 동
실 떠 도는 / 연못에서 사알살 떠다니겠지 // 연못에다 띄워는 / 나뭇잎배는 엄마 곁에 누
워도 생각이 나요 / 살랑살랑 바람에 소곤거리는 / 갈잎새를 혼자서 떠다니겠지”

윤용하의 주요 가곡으로는 '보리밭'을 비롯해서 '고독' '도라지꽃' '추억' '나는 외로워' '자장가' '한가위' 등이 있다.

'고독'은 짧은날의 울적한 심사를 토로한 것이어서 가락이 애절하며 은은한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 A^b장 조 6/8박자로 오페라 아리아를 연상할 정도로 간결함이 도도하게 전면에 깔려있다. 그의 가곡은 대체로 화성처리가 단조롭고 투박한 면이 있으나 반면에 멜로디의 감정노출이 인상적이다. 이런 면에 비하면 그의 가곡 '도라지꽃'은 청초하고 애련한 한편의 서정시라 하겠다. '나는야 외로워'는 첫소리가 느닷없이 고음G에서 시작하여 B까지 올라가는 높은 음조로 되어 있어 가창하기가 어려우나 외로움에 목타는 외로운 절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피난시절 부산에서 '대한 어린이 음악원'을 만들어 여러차례 동요작곡 발표회를 가지기도 하고 전시 작곡가 협회를 조직, 종군음악가로 최전방을 순회하며 많은 군가를 만들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했다. 남아있는 작품으로는 교성곡 '조국의 영광' '개선' 등과 오페라 '견우지녀', 플루트독주곡 '병사의 꿈', 교향적서곡 '농촌풍경' 등이 있다.

과묵한 성격과 비타협적인 고집으로 인하여 가난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는 밤낮없이 술로써 울적한 심사를 달래기가 일수였다. 명동 옛 국립극장 부근에 있는 허술한 대포집에 죽치고 앉아 몽롱한 환각 속에 자기자신을 파묻고 있던 작곡가 윤용하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그는 1965년 7월 26일 서울 남산골 필동 움막집 침침했던 단칸 셋방에서 43세를 일기로 아깝게 영면했다.

'보리밭'을 비롯한 많은 가곡을 빚었던 천재 작곡가 윤용하 선생을 추모하면서 가곡 '보리밭'을 조용히 입속으로 뇌어 보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서다

홍승현 · 소프라노,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부산시립합창단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공식미사에 초청 받아 연주했다.

그 곳에서 연주복으로 아예 갈아입고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간다고 했다. 가는길에 무솔치니의 '오벨리스크'가 보인다.

멀리서도 성당의 위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인데 백색 대리석에 조각이 잘 되어 있어 다른 것들과 비교가 된다. 또 바티칸 성당 이전에 교황청으로 사용되었다던 성 요한 성당(로마 4대 성당 중 한 곳)도 지나간다.

알레시오 성당에 들어가니 유럽의 여느 성당처럼 성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고 이국의 정취 속에서

2007년 6월 13일

여기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Triangoli 호텔. 오늘 새벽 우리는 김해공항에서 김포로, 다시 인천에서 13시간 35분 비행기로 11시간 35분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아! 이탈리아!

우리는 내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의 공식미사에서 초청 연주를 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연주 할 생각을 하니 긍지와 자부심에 가슴이 벅차다. 시차 때문에 많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프로답게 멋진 연주를! 파이팅!

2007년 6월 14일

여유있게 아침식사를 하고 버스에 올랐다. 일교차가 심하다. 성 베드로 성당연주에 앞서 알레시오 성당에서 리허설을 먼저 한 후

리허설을 하는데 이 곳의 울림은 거의 환상적이다. 잔향이 아주 길게 남으니까 충분히 울림을 느끼고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다. 여기서의 공연은 아주 성공적인 연주가 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데 이왕 하는 거 녹음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급하게 한복으로 갈아입고 성 베드로 성당으로 향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우리도 저들 뒤에 서야 하나 열려도 잠시, 특별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X-ray 검색 없이 돌아서 정문 쪽으로 가는데 치렁치렁 긴 한복에 높은 연주구두를 신고 매끈하지도 않은 돌길을, 게다가 36~38°C의 피악별 속이라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등이 다 젖어서야 성당 안으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성 베드로 성당 정문 바로 오른쪽에 관광객들이 몰려 서 있길래 바쁜 와중에도 흘깃 보니 저 끝에 책에서 나오던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상이 보인다. 어떤 젊은 화가가 이 조각상을 감상하다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실력에 화가 나서 망치를 휘둘러 조각상의 코 부분을 깨어 그 이후부터는 피에타상을 유리벽에 넣어 보호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떠오른다.

주위를 둘러 볼 겨를도 없이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성가대석으로 올라앉았다. 자리를 잡고 천정을 올려다 보니 돔 지붕이 역시 소문대로 굉장하다. 웅장함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연주를 하게 되다니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리허설을 하는데 소리도 제대로 못 내보고 제재를 당했다. 리허설 허락을 미리 받았지만 현장에서 이러니 도리없이 포기하고 미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중세 네우마 기보법으로 된 찬트를 훑어보았다. 주교님과 대화식으로 주고 받는 이오니아 선법의 응답창을 즉석에서 부르고 난 뒤 순서에 따라 우리가 연주했다. 미사곡 위주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는데 부르면서 경건함에 마음이 숙연하다.

연주가 너무 좋았나 보다. 반응이 뜨겁다. 바티칸 주 교황청 성염 한국대사께서도 우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고 한국 관광객들도 다가와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인사를 건넨다. 외국 여행 중에 한국 사람들이 그 큰 성당에서 공연하는 걸 목격했으니 같은 한국인이란 것이 어찌 기쁘지 않았겠는가.

이번 연주는 특히 국위 선양은 물론이요, 선교 사절단으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한 우리 역사에 남을만한 의미 있는 일로 기억되리라 생각을 해본다. 연주를 마치고 버스에 오르니 긴장이 풀려서인지 시차 때문인지 모르게 눈이 자꾸 감졌다.

우리가 연주한 성 베르도 성당(San Pietro Basilica)은 이탈리아 로마 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인 바티칸성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성당이다. 교황의 교회로 쓰이는 이곳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례지이므로 간과할 수 없다.

건축양식은 서기 326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4세기 바실리카식으로 지어졌는데 100년 후에 건물이 넓게 되자 16세기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당시의 건축가들에 의해 전성기를 맞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재건되었다. 1506년 교황 율리오 2세 때 시작하여 교황 파울로스 5세 때 완공, 120년간의 긴 세월 동안 가장 큰 성당이 완공되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예수의 12제자 중 수제자인 성 베드로가 십자가에 순교하여 경기장 밖에 묻혔는데 성 베드로가 묻힌 바로 그곳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처음으로 세워진 성당이 오늘날의 성 베드로 성당의 기원이 된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고 이 시대의 절대 실권자는 교황이 된다. 중세에 이르러 십자군 전쟁 실패로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자 교황들이 대규모의 성당을 짓게 되고 이 성당의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게 되는데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발점이 된다. 이로써 구교와 신교가 분리되어 구교회는 천주교로, 신교회는 기독교로 바뀌었는데 천주교는 전통을 유지했으나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의 이견이 많아 여러 교파로 나뉘게 되었다.



'로마의 휴일'의 무대가 된 트레비 분수 앞에 선 필자.

성베드로 성당의 규모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길이는 211M, 천정높이는 45M, 종각꼭대기까지의 높이는 153M, 넓이 5,500여평에 이르고 베르니니가 설계한 복도의 기둥 284개, 50개의 계단, 450개의 조각상이 있다. 때문에 전 세계 가톨릭의 총본산이라는 성스러운 의미 외에 이탈리아 미술의 보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TV에서 교황 관련 뉴스 때에 나 가끔 볼 수 있었던 성 베드로 광장을 보니 시야가 확 트인다. 좌우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있고 광장에는 교황 즉위 때 사용했던 간이 의자들이 열을 지어 놓여있



스페인 광장에서 노래하는 부산시립합창단.

다. 광장 중앙에는 높게 솟아있는 '오벨리스크(십자가 탑)'가 이곳이 천주교의 중심지임을 알려준다.

광장을 둘러싼 회랑 위로 1600년경 '베르니니'가 설계한 142인의 성인상이 서 있다. 성당의 정문 계단 앞에 성 바오로 상과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성 베드로 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5개의 문이 있고 스위스 용병들이 성당을 지키는 모습이 보인다.

성당 내부 모습은 돔형의 천정이 아주 높다. 가톨릭의 권위적인 웅장함과 화려함, 장엄함에 완전히 압도 당했다. 이런 엄청난 곳에서 어제 우리가 연주를 했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중앙에는 베드로의 제단을 덮는 '발다키노'가 있는데 청동 60톤가량을 녹여 만들었다.

성당 바로 우측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보인다. 예수님의 시신을 품에 안고있는 성모마리아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애절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베르니니, 브라망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등 수많은 성화와 조각품들이 성당을 메우고, 조각상, 천연대리석을 붙인 모자이크, 청동상들이 진열되어 있다.

돔 지붕에는 조명을 비추듯 빛이 쏟아져 내린다. 지붕의 꼭대기 전망대 '꾸벨라'는 엘리베이터로 140여 미터 올라가서 또 한참을 돔형 지붕을 따라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서면 로마시내와 바티칸 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한다.

성당 지하에는 교황의 무덤으로 밀랍 유체들이 있다. 벽에 붙여져 있는 역대 교황의 이름을 보니 유달리 짧은 임기 기간들이 당시 교황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컸었는지 짐작이 간다.

성 베드로 성당 연주 이후 다음날이 되어야 내부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이곳까지 와서 좀 더 상세하게 보지 못한게 많이 아쉽다. 꾸벨라에 올라가 보려고 단단히 버리고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이 곳에 다시 올 수 있으려나. 이런 곳에서 연주를 허락해주시고 이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글은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음악협회 초청으로 바티칸시국 성 베드로 성당 공식미사공연과 로마 공연을 떠난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홍승현씨가 이태리에서 보낸 원고입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6월 14일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미사를 시작으로 판테온신전, 콜로세움광장, 알레시오 성당, 로마한인교회, 스페인광장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전통악기에 담겨진 사상과 철학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대학교 강사

예로부터 전통(傳統)을 예기(禮記)에는 ‘옮긴다(移也)’, 한서(漢書)에는 ‘통한다(通也)’, 장자(莊子)에는 ‘뻗는다(延也)’, 이아(爾雅)에는 ‘심는다(植也)’, 석명(釋名)에는 ‘실마리다(緒也)’, 국어(國語)에는 ‘법칙이다(經也)’, 주역(周易)에는 ‘근본(本也)이다’ 하였다. 이렇듯 전통은 인간의 정신을 옮기고 통하고 뻗어가고 심어주고 실마리가 되어 하나의 법칙으로 근본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내림’이라 하여 문화의 원동력으로 삼아 매우 중요시 하였다.

문화의 원동력인 ‘내림’ 즉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나 생활양식, 그리고 사상과 철학을 아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에 힘쓰는 것은 남에게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만이 그 목적이 아니라 조상의 얼을 통하여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해 보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고전을 가까이 하고 고궁을 둘러보며 선현들의 유물을 감상하는 것은 단순히 전대의 문화를 다시 보자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진 고유의 미(美)와 정취(情趣)를 통하여 옛 얼을 발견하고, 그 얼을 통하여 각 개인의 삶을 높이는데 있다. 전통문화가 민족의 정신이요, 사상이요, 얼이요, 생명의 원천이라면 우리의 전통악기를 배워 연주하는 것도 부익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악기에는 각각 추구하는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이를 바로 알고 배우면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전통악기에 어떠한 사상과 철학을 담고자 했는지 몇 개 악기만 들추어 보겠다.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정사로 <삼국사기>가 있다. 그 속에 수록된 악지 편을 읽어보면 우리 선조들이 전통악기에 대하여 무엇을 추구하고 지향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편찬의도라면 역사 서술이 신라부터 되었기 때문에 가야금이나 대금(大琴)이 먼저일 텐데 가장 먼저 수록된 악기는 현금(絃琴)이다.

서두에 말하길, 거문고는 중국 악부(음악을 관장하는 관청)의 금(琴)의 형상이다 하면서, 한나라 때 채옹(133-192)이 지은 <금조>라는 책을 인용하여 “수신이성 반기천진(修身理性 反其天真)”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다. 즉 몸을 닦아 성품을 다스려 하늘의 순진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악기란 것이다. 지향하는 바가 이와 같아서인지 역사적으로 현금은 공부하는 선비와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사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악기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이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순수함으로 돌아가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면 현금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 여겨진다.



필자는 가끔 현금의 청탁소리가 음(어두움;그릇됨)과 양(밝음;옳음)을 구별해주고, 대접소리는 용(勇; 과감성)을 길러주며, 소점소리는 절제(節制)함을 일러주는 것 같아 현금을 권장한다. 물론 음악에는 시와 선율, 그리고 리듬으로 감성(感性)도 중요하지만 추구하는 바가 이성(理性)에도 있다면 그 배우는 바가 또한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한다.

다음은 가야금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야금 역시 중국 악부의 쥘의 형상이다 하면서, <석명>에 기록된 쥘(箏)을 설명하고, 이어 중국 진나라의 문인(文人)인 부현(傅玄)의 글을 인용하여 '인지지기(仁智之器)'라 하였다. '인지지기'란 어질고(仁) 지혜로움(智)을 추구하는 악기란 것이다. 따라서 가야금의 영롱한 소리에 어질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야금을 접하고 배운다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게 될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뜻하는 바가 다른 곳에 있고 막연한 고상함과 소일로써 배우며 그것을 감상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에게 갈등의 폭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악기로써 인을 추구하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삶의 한 방편으로 악기를 배워 동반자로 삼는다면 그 삶이 더욱 운택해지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삼국사기>에는 삼죽(대금·중금·소금)을 설명하고 있는데, 삼죽 역시 중국악기 중 당적(唐笛)의 형상이다 하면서, 이어 한나라 때 마옹(馬融)이란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저(笛)는 척야(濂也)니 소이척사예(所以濂邪穢)하여 납지어아정(納之於雅正)이라" 하였다. 즉 삼죽(笛)은 씻는다는 뜻이니 간사하고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어 아정하고 바름으로 들게 한다는 말이다.

어떻게 악기로써 간사하고 더러운 마음을 씻어낸다는 말인가? 이렇게 자문하고 싶은 말이다. 그러나 직접 배워보고 느끼면 그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대게 잡서보다는 고전의 글이, 그리고 야사보다는 정사의 글이 옳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비록 한 사람의 음악가가 아닌 당대의 유명한 역사 편집자들이 같이 남을 사서(史書)에 이런 말을 인용한다는 것은 그 지향하는 바가 누구보다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취미가 있듯이, 과거에도 많은 취미가 있었다.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이 당시의 것만 취한 것이 아니라 전통에 뜻을 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릇 전통은 마냥 품으로 취하는 것만은 아니다.

한량무

홍기태 ·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한량이란 벼슬에 오르지 못한 양반을 일컫는 말로 풍류를 알고 기세가 좋고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사나이를 부르는 말인데, 한량들이 놀이판을 펼쳐 즐길 때 추었던 춤을 이름하여 한량무라 한다.

현재 한량무는 두 가지 형태가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혼자 추는 독무로서 한량무가 있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 춤과 연기가 혼합된 무용극 형식의 한량무가 있다. 설화에 의

하면 한량무는 순수한 무용이라기보다는 무용극 형식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독무의 한량무는 춤 그 자체로써 한량이라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춤을 통해서 모든 의미를 전달하게 되고, 한량의 품격과 자태를 강조하며 동작을 멋들어지게 춤으로써 관객을 매료시킨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춤으로는 동래한량무를 꼽을 수 있다. 이 춤은 덧배기 사위를 기본사위로 장중함과 호방함을 특징으로 하는 영남의 대표적인 춤이다. 예로부터 동래지방에는 멋과 풍류를 세월에 안은 많은 분들이 있어 왔으나, 이분들의 투박한 듯한 춤사위와 동래 특유의 덧배기 사위들이 조화로운 형태로 변모되면서 오늘날의 한량무의 모태가 되었다고 믿어진다.

현재 동래한량무는 문장원 선생이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재 제 14호로 지정받고 준 보유자이신 김진홍 선생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량무의 의상은 바지저고리에 도포를 걸치고 머리에는 상투에 갓을 쓰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춤을 춘다.

무용극 형태의 한량무는 한량과 별감이 기생을 데리고 즐겁게 노는 자리에 승려가 이 광경을 보고 기생에게 반하여 멋진 춤으로 한량과 기생의 환심을 사서 기생이 마침내 별감을 배신하고 승려에게로 간다는 것으로 타락한 선비, 파계한 중, 정조 없는 색시, 게으른 관리 등을 응징하는 조선 시대의 퇴폐성을 풍자하고 있다.

이 춤에는 악사와 한량, 승려, 기생, 주모, 별감, 상좌, 마당쇠 등이 등장하는데, 배역에 따라 성격이 다른 춤사위와 옷차림으로 구성된다. 한량의 경우 도포에 정자관을 쓰고, 별감은 궁중 별관복을 입으며, 기생은 궁중 기생 옷으로 몽두리에 색 한삼을 끼고 방갓을 쓴다. 춤 장단은 주로 삼현육각의 연주로 중모리, 타령, 굿거리, 자진모리 등의 가락을 사용한다.

1979년도에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 3호로 지정된 진주 한량무가 대표적이며, 진주한량무는 교방계의 무용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인 궁중무와는 달리 민족적 특색인 계급사회의 시대상을 날카롭게 풍자하였다. 주로 무동에 의해 구한말까지 전승되었고 1910년 이후부터는 무동이 아닌 어른들의 춤으로 변하여 기방에서 성행하였다.

예능보유자로는 김덕명 외 7명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김덕명씨가 김농주선생에게 배운 한량무는 무용극이었으며, 처음 배울 당시에 김선생은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을 주면서 이 한량무의 유래는 이 책 속에 전한다고 하였다. 김덕명씨가 배운 한량무는 다른 지역의 한량무가 5인 또는 4인이 추는 것과 달리 7인이 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량무는 우리나라 가면극 중 기녀계에서 연희되던 최초의 극 형식 춤으로 역동성, 남성다움을 간직하고 있고, 또한 궁중계의 춤도 아니고 순수한 민속춤도 아닌 교방계류의 무용극 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한량무의 춤사위와 내면에 깃든 정신을 보면, 멋과 흥을 아는 양반 사대부의 여유로움과 절제가 담긴 멋의 깊은 경지를 알게 한다고 한다. 흥을 안으로 삭이고, 드러냄을 자제하여 더 큰 흥을 가슴에 담고, 뽐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춤사위의 응축된 절제를 통해 우리 춤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한량무라고 할 때, 이 춤이야말로 남성춤의 대명사라 해도 지나침이 아닐 것이다.

여름 숲으로 가서

— 남궁정화 <In the garden> —

김형술 · 시인

여름 숲으로 오라. 용틀임하는 진초록 생명들이 분출하는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곳. 생의 정점에 선 꽃과 풀, 나무들이 제각각 붉고 푸르거나 노오란 제 몸속의 선혈들을 거리낌없이 분출하는 곳, 그 선혈들이 내뿜는 생명의 향기 어지러운 여름 숲으로 와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의식을 꽃과 풀과 나무들에게 맡기자. 들끓는 태양이 쏘아대는 황금의 햇빛화살들에 몸을 내맡긴 채 한 그루 나무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말없는 숲의 아우성 쪽으로 귀를 열자. 인간의 말을 버리고, 인간의 노래와 비명과 탄식을 버리고 가슴과 머리 속을 텅텅 비운 후 꽃의 말, 나무의 말, 풀의 말을 온몸 넘치도록 채워넣자. 숲 속에 가득 찬 태초의 말들, 아무 것에도 길들여지지 않은 원시의 언어를 갓 태어난 아기처럼 배워보자. 바람의 눈, 구름의 몸, 커다란 날개를 펼치며 날아올라 하늘에 못박힌 듯 정지한 채 여름대기를 읽는 흰 새들의 숨긴 발목을 오래토록 바라보자. 소멸을 향해 즐달음치는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조잘거리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숲속의 물소리들을 잠시 멈춰 세우고 늘 흘러가기만 하던 시간 속에 도사린 눈부신 한 순간을 잠시 곁에 앉혀두자. 땅 속의 벌레, 나무 위의 새, 풀숲에 웅크린 작은 짐승들의 몸짓이 멈춘 여름 숲속의 정적은 귀가 먹먹하도록 깊고 커다란 울림을 가졌다. 둥글게 둥글게 몸 속을 퍼져나가는 이 침묵의 울림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몸을 관통한다. 나는 숲속을 휘감는 덩굴들처럼, 덩굴들에 몸을 내어주는 큰 나무들처럼 가열차게 살아있어 지상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숲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름 숲 위에 떠있는 뭉게구름처럼 가벼워졌다. 여름 숲은 커다란 정원이며 나는 무심히 정원을 걸거나 정원의 나무들처럼 그저 서 있는 보행자, 혹은 정원의 일부가 된 것이다. 여름 숲으로 가자. 여름 숲으로 가서 피 흘리는 꽃이 되고 하늘을 치켜올리는 나무가 되며 세상 끝을 향해 덩굴을 뻗는 풀이 되어 서 있다. 멈춰버린 생의 한 순간을 놓아버린 후 일제히 날아오르는 여름새들과 새들의 날개 끝에서 태어나는 바람과 느릿느릿 허공을 걷는 구름을 따라 걷는 일 또한 삶의 아름다운 축복임을 알게 될 터이니.

남궁정화의 그림 <In the garden>은 자연의 충만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얼핏 무질서하게 배치된 넝쿨과 덩굴, 꽃나무는 뒤엉킨 그대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자라는 자연 나름의 질서를 그대로 드러낸다. 서로를 휘감은 채 어우러진 가지와 꽃잎들, 넝쿨들은 마치 누군가가 흘리고 간 희고 붉으며 푸른 핏자국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간의 손길에 의해 잘 계획되고 배치된 정원이 아니라 그냥 무심히 방치되었으므로 더욱 무성한 풀숲과 그늘을 가지게 되었을 이 자연의 풍경은 오히려 더욱 생생한 야성

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준다. 자연스럽게 형클어진 채 서로 어우러진 이 풀숲과 덩굴들은 화면 상단에 배치된 나무들 너머까지 뻗어 있으리라. 그리고 강렬한 원색의 색채를 가진 꽃 덩굴의 그늘에는 뱀과 곤충들 혹은 작은 새들의 등지가 깃들어 있을테고. 아찔한 생명의 향기를 뜨겁게 내뿜는 여름정원 혹은 여름 숲은 그 자체로 강렬한 매혹을 내포하고 있다. 탄생에서 신록을 거쳐 소멸의 시간인 가을이 오기 직전, 꽃과 풀과 나무라는 생명들이 내뿜는 이 절정의 열기는 열정적으로 삶을 예찬하는 노래이기도 하므로. 화가는 여름정원의 전체를 조망하는 대신 정원의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쪽을 택했다. 그림 앞에 선 이들은 제각기 자신만의 경험으로, 또 자신만이 가진 기억에 의해 여름 정원 속으로 발을 내딛는다. 조심스럽게 꽃가지를 들어가며 풀숲을 헤치고 걸다 꽃그늘에 숨은 뱀을 만나거나 가시에 손을 찔리거나 할 터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뜨겁게 피어오르는 생명의 열기에 온몸으로 감전 당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몸 속에 풀숲이며 꽃 덩굴, 우거진 수풀같은 생명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남궁정화작 <In the garden> wood cut, 30x60cm

자연과 인위(人爲)

유상훈 · 연극배우



부산시립극단 '수전노' (사진은 6월에 공연한 찾아가는 연극 무대).

극지의 얼음이 녹아가고 이상기온이 곳곳에서 발생하며 비바람이 지나치고 바다가 넘쳐대지만 지금 이곳의 녹음은 시리도록 푸르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위해 분주히 이동하고 있다.

자극에 대해 든든한 갑각류도 아니고 여린 반응에도 쉬 휘어질 수 있는 연체동물도 아닌 인간은 자극을 받아 척추로 두뇌로 돌려, 감당하고 폭을 두고 결정하여 반응하는 척추동물이다. 그런 인간은 저보다 더 큰 돌고래에게 쇼를 하게 하고 코끼리

를 부려 일도 시킨다. 생각해볼 때 처음 직립보행을 하던 인간의 뒤뚱거리는 모습에 나머지 유인원들은 배를 잡고 나뭇굴었을 것이다. 또한 소리에서 말이라는 고통스런 음운체계로 옮겨갔을 인류의 그 작위적 행위의 시작들.

처음 죽음이란 걸 인식하여 이해되어지던 어린 날의 순간이 있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어머니 창 별을 받아 자수(刺繡)를 놓고 계셨고 난 어머니 무릎을 베고 뒹굴던 그야말로 완벽한 평화의 순간이었다. 하필 그 순간 죽음이란 인식이 밀려왔는지 왜 완벽한 평화의 순간에 죽음이란 결별을 떠올렸는지는 딱히 모르겠지만 이후로 가끔 삶이 깊어지면(인식이 정제되어지면) 그기에 죽음도 같이 들어서서 경험은 있기도 하다. 어쨌든 그 때 처음 죽음에 대한 이해의 충격은 컸었다. 눈자위로 쪼여드는 공포의 테두리는 그야말로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고 사지는 저리게 굳어져갔다. 그 모습을 감추려 어렵게 고개 돌려 누워 공포를 이기려고 어머니의 무릎인 현재를 열렬히 꼭 붙잡았다.

그렇게 한번도 약속하지 않은 죽음의 이행을 부채로 타고났는지 알았는데 얼씨구 연초의 일간지를 장식했던 생명공학의 진행과 미래를 소개하는 기사 속에 몇년도엔가 이르러 인간수명이 800살 운운하며 반영구적인 생명연장의 실현을 논하고 있었다. 육체의 병든 부위를 교체해나간다는 골자였던가 싶다. “하, 인문학은 고전을 먼치 못하고 예술은 권력과 대중의 밀을 닦는 동안 과학은 죽음을 정복하려드는구나...”

고 책 하다가 현상의 문구명을 통해 영원을 향유하는 예능의 본래적 기능이란 현재적이지 않겠느냐는 자위를 하며 넘겼었다. 아무튼 그것이 발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대한 우주가 지금도 쉽 없이 팽창하고 있고 그 속에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의 회전을 계속하듯 모든 것은 변하여 이동해 가는가 보다.

어떤 연출가는 연습 들어가기 직전의 고통을 호소한다. 일상에서 압축된 연습의 긴장 속으로 이동하는 압박감일 것이다. 그건 연기자도 두말없이 마찬가지다. 하물며 공연 때야 일러 무엇하랴. 괜히 화장실도 갔다오고 물도 한 잔 더 먹고 담배도 다시 한번 빼어 본다.

무대 위에서의 이동은 목적과 필요에 의해 자연스런 의지를 가장한다. 자연스러운 움직임? 전설적인 춤꾼 니진스키가 유럽투어 중 보여줬던 프로그램 중에 그가 무대로 달려나와 10여분인가의 시간을 끔찍 않고 한 곳을 쳐다 보는 것으로 끝난 안무가 있었다 한다. 그 공연을 본 어느 기자는 그 시간동안 객석의 관객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적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멈추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을 위해 영혼을 팔았다. 가끔 우리나라 궁중음악이나 정악을 극장에서 관람하다보면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시간 맞춰 달려온 관객의 호흡으로 따라잡기에는 근접하기 힘든 소리의 모양과 템포임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현대는 모든 게 빨라지고 쉽 없이 무언가로 채워져가고 있어 보인다. 무대도 시간도 의식도 감각도 언어도 소통도... 100년전 만해도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조상을 능멸할 천인공노할 사실이 이 땅의 현실이었다. 인간은 저 불편한 하이힐을 상용화했고 언젠가는 화장하듯 성형수술하지 않으면 게으른 예의 없음 썸으로 치부될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혹은 언젠가 이 지구가 내밀한 생명력의 열정대신 허열(虛熱)에 휩싸여 더 이상 인류는 호흡을 멈추고 돌고래처럼 물 속으로 뛰어들어 거기서 살아가는 진화(?)를 겪게 될지도 모르리라.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는 세계제패 한달 전에도 너무 어려워 스케이트를 그만두려고 했다 한다. 그때, 자연스러움의 극치는 우리가 무대에서 그러하듯 감당해야만 하는 이 무게의 현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연속성일 것이다. 누군가 우스꽝스런 직립의 보행과 고통스런 음운체계로 언어를 시작했듯이 달혀있지만 무한히 열려있는 저 무대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자연의 장을 열어줄 인위적 천재를 기대해봄직한 만물의 계절 초록의 계절이다.

나만의 예술작품을 만난다 프리아트마트 다리 밑(meet) 예술장터

한바탕 비라도 쏟아질 듯 우중충한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맑아지기 시작한 지난 6월 16일 오후 3시,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아래 공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바로 부산 유일의 프리마켓인 '다리 밑(meet) 예술장터'가 열리는 날. 양 옆으로 길게 차려진 전시 부스에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준비해온 다양한 수공예품들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프리마켓은 오래된 물건이나 중고용품을 직접 사고 팔던 유럽의 야시장(野市場)인 벼룩시장에서 유래했다. 영어로는 플리 마켓(Flea Market), 말 그대로 벼룩시장. 프랑스에서 유래된 말로, 경찰이 단속을 나오면 사라졌다가 경찰이 가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벼룩이 튀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국내에 들어오면서 부터는 젊은 아마추어 작가들의 아트마켓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젊음을 상징하는 '자유' 프리(Free) 마켓으로 알려지게 됐다.



'다리 밑(meet) 예술장터'는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열려 오던 프리마켓을 만날 수 있는 색다른 문화공간이다.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3번 입구로 나오면 바로 연결되는 '다리 밑(meet) 예술장터'는 '지하철이 오가는 철교 다리 아래(밑)에서 사람들과 만난다(meet)'는 의미로 '다리 밑(meet)'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지난 5월 26일 첫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총 10차례 장터가 펼쳐진다. 예술장터에서는 아트공예 전문가들

의 멋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마켓과 중고물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중고마켓,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문화존으로 지정된 '부산대학교 존'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펼쳐지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리 밑(meet) 예술장터는 일상과 예술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생활 속 예술공간입니다."

행사주관처인 대안문화행동 '재미난 복수'의 멤버로, 이번 행사의 기획을 맡고 있는 손지현 씨는



다양한 수공예 체험행사는 예술장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다리밋 예술장터는 아트마켓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이번 '다리 밋(meet) 예술장터'가 그동안 뿌리내리지 못했던 아트마켓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활력소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다리 밋(meet) 예술장터'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사전 작품 심사 후 선정된다. 6월 16일 두 번째 행사에는 15명의 수공예 작가들이 참석해 그들만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시민들과 만났다. 예술장터가 벌어진 3시부터는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신현주, 김한송이, 최수진, 최경철로 구성된 국악양상블 '자하산'의 국악무대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펼쳐져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모으기도 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손가방과 손지갑 등 페브릭 소품을 판매하고 있는 정세진 씨. 온라인 동호회 부산프리마켓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5월에 이어 두 번째 행사에 참가한 그는 지난달에 비해 구경은 시민들이 적어 아쉽지만, 자신만의 창작품을 보여주고 판매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무척 소중하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는 김지용 씨는 프리마켓 참가가 이번이 처음이다. '동물원 혹은 그냥'이라는 브랜드로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지만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예술장터에도 계속 참여할 생각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공예 체험행사를 돕고 있는 오민영 씨는 몇몇 초등학생 어린이들과 함께 버려진 나뭇가지를 이용한 열쇠고리, 핸드폰줄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플로라이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종이박스를 이용해 만든 액자에 넣는 체험행사를 가져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금정청소년수련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진, 이주희 씨는 청소년문화존이 열리는 날이면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일일교사로 활동한다. 팔찌를 이용한 생리일 알기, 면생리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과 만나 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부산대학교 근처에 약속이 있어 왔다가 음악소리에 이끌려 오게 됐다는 박혜영 씨.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작가 저마다의 개성있는 작품들이 시선을 잡는다"는 그는 오늘 만나는 친구에게 액세서리를 선물할 계획이다.

· 주요일정

7월 14일, 8월 11일, 8월 25일, 9월 8일, 9월 29일, 10월 13일, 10월 27일,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3:00 (하절기는 오후 5:00, 우천시 다음날인 일요일로 연기)

■문의/다리 밋 예술장터(club.cyworld.com/funnymarket)

가야금 선율의 매력에 빠진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



각종 강습회를 통해 어렵게 배운 가야금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 2006년 결성된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

9명의 아줌마가 뭉쳤다. 전문 연주자도, 전공자도 아니지만 가야금에 대한 애정 하나로 연주단을 만들고 맡았다. 바로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 문은애 회장을 비롯 박현숙, 김영숙, 김문희, 이나경, 김순자, 이슬비, 주미영, 황명출 등 9명의 아줌마가 '우리문화 계승'이라는 큰(?)뜻을 품고 지난해 10월 결성했다.

부산여성문화회관, 구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등이 주관

하는 가야금 강습회를 통해 차츰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다른악기에 비해 가야금 인구가 많지 않고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터전이 아직은 부족하기만 하다.

“아마추어 연주단체로서는 아마 전국 최초이지 싶습니다.”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 단장을 맡고 있는 국악인 강봉천 씨. “다른 악기와 달리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거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배우는 곡 역시 산조나 민요에 한정되어 있어 창작국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주할 수 없는게 지금 가야금을 배우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한계”라는 그는 평소 힘들게 배운 실력을 그냥 사장시키기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보며 많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맘껏 배우고 또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전부터 연주단 결성을 생각해왔던 강봉천 씨는 지난해 문은애 회장을 통해 지금의 단원들과 만나면서 그 뜻을 이루었다. 지금 단원들은 문화센터 수강생으로, 혹은 온라인 동호회 회원으로 서로 인연을 맺었다.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 회장으로 있는 문은에 씨가 가야금을 배우게 된다는 웃지못할 사연이 있다. 컴퓨터 수강생으로 부산여성문화회관과 인연을 맺게 된 그는 우연히 수강생이 부족해 폐강직전에 가게 된 가야금반 수업에 참석하게 되면서 가야금 선율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남편이 암투병으로 힘들 때, 갱년기를 힘들게 넘길 때도 마음을 달래주는 친구가 가야금이었다는 문은에 씨에게 가야금은 이제 떨레야 떨 수 없는 가족과 같은 존재이다.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은 오는 11월 29일 시민회관에서 창단연주회를 갖는다. 1년여동안 익힌 실력도 선보이고 동시에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무대라 창단연주회 준비로 그 어느때 보다 바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있는 정기모임은 물론 시간이 나는 틈틈이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단원들의 연습은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단원인 박정미, 배민경, 황남은 씨가 돕고 있다. 특히 단장으로 있는 강봉천 씨가 단원들의 기량에 맞게 연주곡들을 새롭게 편곡하는 등 레퍼토리의 다양화에 힘쓰고 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단원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어려운 곡들도 척척 소화해낸다.

이번 창단연주회에서는 가야금 산조를 비롯 창작곡, 가야금병창, 판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의 창단을 축하하기 위해 가야금연주자 지순자 선생과 소리꾼 김용우 씨가 특별출연,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창단 연주회 연습에 부담이 커 당분간 단원모집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창단연주회를 무사히 마친 후 새롭게 공고를 통해 단원모집을 하겠다는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은 자체 홈페이지(psgayagum.com)를 통해 연주단 소개는 물론 현재 전해지는 유파별 가야금산조와 가야금창작곡 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가야금에 관한 궁금증을 알려내고 있다.

“앞으로는 부산역, 지하철역 등 시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무대를 통해 가야금의 매력을 더욱 알려 나가겠습니다.”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은 이밖에도 고아원이나 노인병원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나설 예정이다.

■문의/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011-556-1510, 468-4833)



오는 11월 29일 창단연주회 준비로 바쁜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은 앞으로 고아원이나 노인병원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나설 예정이다.

공포 프로젝트 '몬스터' 무대에 올리는 예술공동체 마르 안무가 강희정



9월 무대에 오르는 강희정 씨의 공포프로젝트 '몬스터' 연습장면.

몸짓으로 표현되는 공포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동안 과격적인 무대로 작품마다 화제를 몰고다녔던 안무가 강희정 씨가 9월 색다른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9월 14일부터 3주간 무대에 오르는 공포 프로젝트 '몬스터(가제)'가 바로 그것.

늦은 시간 연습실에 들어서자 안무가 강희정 씨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춤꾼 김종원, 배우 백선우 씨가 머리를 맞대고 작품구상에 한창이다. 작품이야기에 들어가자 강희정 씨가 대뜸 시집 한권을 내민다. 이성복의 시 '인형을 엮은 한 아

이름'이다. '...사내가 먼저 작은 아이를 물 속에 밀어넣었다 겁에 질린 큰 아이가 울면서 달아나다가 사내의 손에 잡혀 물 속으로 떨어졌다 아버지, 거짓말같이, 아버지...'

"낮선 것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공포를 낳고 광기를 낳는다"는 강희정 씨. '공포'라는 주제로 다양한 광기의 영역을 다루겠다는 그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카인의 후손인 우리에게 원죄로 남겨진 '존속살인'을 소재로 한 작품 '거짓말' 연습에 한창이다. 거짓말은 6월 27일, 28일 열리는 프로젝트 그룹 연분 흥정 기공연에 우선 올린다.

'몬스터'는 강희정 씨가 2년전부터 구상해온 작품이다. '공포'는 지난 2000년 예술공동체 '마르'의 세 번째 정기공연에서도 한번 다뤘던 주제이다. 당시 '친구의 죽음'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였던 그에게 '공포'는 다시 한번 다루고 싶었던 주제이다. 특히 올해는 '마르' 창단 10주년을 맞는 해인지라 강희정 씨에게 더욱 의미가 크다.

강희정 씨를 이야기할 때 예술공동체 '마르'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998년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가들로 결성된 '마르'는 무용, 연극, 미술, 영상 등 장르간 연대를 통한 새로운 무대실험을 펼쳐오고 있다. 강희정 씨는 '마르' 대표로 있으면서 그동안 무용 '카페 드 레인', '청춘', '맨발로 하늘을 걷다', 뮤지컬 '그리스', '사랑은 비를 타고', 연극 '실내극', '트라우마', '실크커튼을 열다' 등 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몬스터'는 여러 곳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이성복의 시 뿐 아니라 최근 영화로도 개봉되었던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항수', 만화 '몬스터', 히치콕 감독의 영화들, 연극 '트라우마' 등 그동안 강희정 씨 머릿속에 담겨졌던 공포에 대한 이미지들이 작품 속에 투영될 예정이다.

예술공동체 '마르'의 일원이자 연극 '트라우마'의 작, 연출자인 구현철 씨가 대본을 맡은 '몬스터'는 무용수 문라옥, 김종원, 배우 백선우, 조창주 씨가 참여하면서 캐스팅 또한 거의 마무리 되었다. 김종원 씨와 백선우 씨는 이번 '거짓말' 작업에서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다.



안무가 강희정씨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춤꾼 김종원, 배우 백선우씨가 머리를 맞대고 작품구상에 한창이다.

"이미지만을 갖고 작업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죠. 작품이 일관성 있게 제 갈길을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게 연출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몇 년전부터 호흡을 맞춰오면서 이제는 강희정 씨가 슬쩍 내뱉는 한마디 말에도 작품의도를 읽어내는 연출가 구현철씨는 든든한 작업 동반자이다. "텍스트에 얽매이다 보면 자칫 이미지가 갇힐 수 있다"며 대본작업은 6월말부터 들어갈 예정이라한다.

'춤은 완성이 아닌 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예술'이라 생각한다는 그는 그래서 무용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3년 전 강희정 씨를 만나면서 춤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무용수 김종원 씨와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시절 스승과 제자 사이로 먼저 만났다는 배우 백선우 씨와의 연습은 언제나 유쾌한 수다로 시작된다. 연극이 아닌 장르에 첫 도전하는 백선우 씨는 '춤꾼의 동작이나 배우의 몸짓 모두 움직입'이라는 생각에 즐겁게 작업하고 있다.

몬스터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열린소극장에서 열린다. 장기공연이 거의 없는 무용공연으로서는 예외적으로 공연날짜가 길다. 그러나 지난해 마르 정기공연 '의자'를 11일간 무대에 올렸던 강희정 씨로서는 새삼스러울게 없다. "단 한차례 공연을 끝내고 나면 아무래도 작품의 완성도에서 아쉬움을 갖게 된다"는 그는 주위의 우려에도 무사히 끝냈던 지난 경험에서 장기공연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현실에 만족해 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흔들릴 때, 나 자신 속에 내재된 괴물이 모습을 드러낼 때 가장 공포스럽다"는 강희정 씨. 그의 공포가 궁금하다면 오는 9월 열린소극장을 찾아가보자.

뿌리를 찾아 왔어요

시카고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 단장 오신애



“한마디로 익사이팅이에요. 우리말이 서툰 아이들이지만 부산과 부산의 아이들, 우리 문화를 만난 기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6월 14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시카고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 단장 오신애 씨(54세).

이번 공연은 부산과 시카고가 지난 5월 7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오신애 단장과 교민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나라 한국을 보여준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부산과 시카고가 자매결연을 맺은 뒤, 한국하면 서울만 생각하던 시카고 시민들에게 부산을 알리고 부산과 시카고를 잇는 문화 사절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시카고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은 2004년 미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교포 2, 3세 어린이들로 창단된 어린이 예술단이다. 미국 50개 주에서 유일한 어린이 홍보사절단인 만큼 단원들의 열정, 자부심이 대단하다. 시카고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은 5세부터 아카데미에서 우리 춤을 배운 어린이들을 선발한다.

오신애 단장은 이번 한국방문을 기다리며 더 열심히 연습해준 단원들이 너무 고맙다. 시카고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은 부산에 도착해 14일 파라다이스 호텔 야외가든에서 공연을 가진 뒤 다음날은 부산의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센텀초등학교에서 공연을 가졌다. 15일에는 부산문화회관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부산의 초등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만들어 꾸준히 교류해나갈 계획이다. 우리 말과 글,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동포 자녀들에게는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부산의 학생들에게는 영어와 미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어 두 도시간의 교류에 기대가 크다.

오신애 단장에게도 부산방문은 오랜 추억을 따라가는 설렘의 연속이다. 서울이 고향인 오신애 단장은 학

창시절 가족들과 함께 매년 여름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보냈다. 재첩국 아지매의 '재첩국 사이소~' 소리를 들으며 잠을 깬 해운대의 바다가 오래도록 보고 싶었다고.

"30년여년 만에 부산을 다시 찾았는데 몰라보게 발전한 부산의 모습에 깜작 놀랐어요. 많은 시카고 교포, 시민들에게 국제도시로 성장한 부산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어요."

현재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20만명 정도. 시카고 교민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시카고 내에 전통 춤 모임이 10곳이 넘는다. 대장금, 황진이 등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 부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

미국 이민 초기에는 전업주부로 미국사회에 적응하느라 바쁘게 보냈다는 오신애 단장은 5년전 부터 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투자 회사 시나이콥을 운영하며 서울과 시카고를 오가며 시은희 회장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신애 단장은 여성장애인,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퇴치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IMF 당시에는 나라사랑어머니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기금 2만불을 모아 고국에 전달했다.

시카고 내에서도 열정 넘치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오신애 단장은 지난 5월부터 시카고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어느지역보다도 시카고 교민들이 결속력이 높아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의 전망도 밝다. 현재 교민들은 시카고 내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기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

"우리 뿌리를 찾고자 하는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해 우리아이들이 미국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울곧게 우리 문화를 배우고 지키고 있는 오신애 단장과 시카고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 그들에게서 한국의 힘을 배운다.



2004년 교포자녀들로 창단된 시카고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은 부채춤과 가야금 병창, 장구춤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해 내고 있다.

꿈의 바다로... 축제의 감동으로

제 3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

7월 31일-8월 6일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의 여름 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부산국제해변무용제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오른다. 국내·국제문화교류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05년 처음으로 시작된 부산국제해변무용제는 여름 휴양지에서 세계 각국의 무용을 감상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름 축제이다.

2007년 부산국제해변무용제 주제는 '꿈의 바다로... 축제의 감동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광안대로를 배경으로 특설무대가 세워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무대 위에서 부산 시민들과 피서객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무용을 펼친다.

올해는 네덜란드, 독일, 일본, 스위스, 러시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중국, 핀란드 등 외국초청 9개 단체 팀과 한국 국내초청 9개 단체팀, 자유참가 15개 단체팀 등 총 10개국 33개 단체가 참가해 부산에서 개성이 넘치는 세계 각국의 춤을 만날 수 있다.

2007년 부산국제해변무용제는 지난해와 달리 해외초청작과 국내초청작 외에 자유참가팀 15개 팀을 선정한 것이 이채롭다. 재즈댄스, 탭댄스, 댄스스포츠, 벨리댄스, B-boy 등 대중적인 춤을 선보이게 될 자유참가팀은 각 팀 단체의 영상자료를 심의 선별하여 꿈의 바다의 축제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공연기회를 마련했다.

8월 1일~6일 펼쳐지는 국내·외 워크숍에서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일본, 아일랜드의 예술감독과 초청안무자가 강사진들로 참가해 새로운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 올해는 야외공연이 열리는 광안리해변 특설무대 옆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무용체험과 메이크업 체험행사 등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마련된다. 무용체험에서는 시민들이 각 무용단 무용수들로부터 직접 무용도 배워볼 수 있다.

올해는 부산국제해변무용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100인회를 결성, 후원금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부산국제해변무용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 7월 31일 개막공연 오후 7:00 광안리해변 특설무대

부산시립무용단 '천지인' '화중지선', 대구시립무용단 '꼭두각시', 현대무용단 LDP 'No Comment'
러시아 The Kirov Marinsky Ballet '로미오와 줄리엣',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주립발레단
'Schutzengelssonate', 네덜란드 Galili Dance Company 'When you see God...tell him'

독일 Disconnection Dance Project 'Behind Closed Eyelids', 핀란드 Compania Kaari Martin 'Cuetame Lluvia'

■8월 1일 수요일 오후 7:00 광안리해변 특설무대
 김진홍전통춤연구회 '동래한량춤', 러시아 The Kirov Marinsky Ballet 'Etude about the women' '마농',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주립발레단 'Abgeschminkt', 네덜란드 Galili Dance Company 'Extile Within', 독일 Disconnection Dance Project 'Almost...', 핀란드 Compania Kaari Martin 'Pasara'

■8월 2일 목요일 오후 7:00 광안리해변 특설무대
 NOW무용단 '도깨비춤', 썬무용예술단 'I love sunny', 아일랜드 Dance Theatre of Ireland 'PRISM', 스위스 Philippe Olza Dance Company 'GDEO, Kimchi-Cheese', 핀란드 Compania Kaari Martin 'El cielo de a noche', 중국 Yu Wei Dance 'Tears', 일본 Makimoto CLUB '일본 야 일본 - 한국버전 I'



■8월 3일 금요일 오후 7:00 광안리해변 특설무대
 탭푼 '호러탭콘서트', 김복선 발레단 'Deep Blue', 아일랜드 Dance Theatre of Ireland 'Cha Cha Cha d'Exil' 아일랜드, 스위스 Philippe Olza Dance Company 'GDEO Olza', 중국 Yu Wei Dance 'Happiness' 'Rainbow', 일본 Makimoto CLUB '일본 야 일본 - 한국버전 II'

■8월 4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김진홍전통춤연구회 '지전춤', 신무섭무용단 '남자 1,2,3...그리고', 아일랜드 Dance Theatre of Ireland 'Soul Survivor', 중국 Yu Wei Dance 'Water', 일본 Makimoto CLUB '일본 야 일본 - 한국버전 I'

※자유참가팀(15팀)

레티나 댄스 씨어터 'UNBALANCE (out-side)', 그랜드 발레단 '창작 백조의 호수', 벨리코리아 부산 프로 공연단 벨리댄스 'The Lost Space', 부산살사댄스아카데미 'CARAVAN', Kayah 벨리댄스 무용단 'BIFROST(하늘과 땅에 걸친 무지개 다리)', 서지희 댄스 프로젝트 발레 'confusion' 하은정의 발무용단 '공(空)', 다스 파퓌 재즈댄스 '열정' KONG DANCE 현대무용 'The road' 을 댄스 시어터 재즈와 현대무용 '지금', 팝박스 벨리댄스 '얼굴없는 댄서' 비둘기노인대학 댄스스포츠팀 '아름다운 댄스', 한국벨리댄스 부산지부 '피라미드의 기적'(자유참가팀은 본 공연 후 매일 5개팀 씩 공연)

■입장료: 무료(8/4일 극장 공연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일반석 10,000원 · 학생 7,000원
 ■문 의: 부산국제해변무용제 추진위원회
 (642-0943, www.bibdf.com)

소품(小品, piece)의 세계 ‘무용음악(舞曲)’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차이코프스키의 발레모음곡
‘백조의 호수’ 음반 표지

춤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의 하나이다. 때문에 춤은 인간의 일상(日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중세시대엔 춤의 반주가 기악 뿐 아니라 노래에 의하기도 했지만, 13세기 무렵부터 노래 반주는 점차 쇠퇴하고 기악반주가 확고한 자리를 잡게된다. 16세기에 이르면 여러 형식의 춤이 성행해서 유럽의 곳곳에서 수많은 무곡들이 만들어지는데, 알르망드(allemande), 쿠랑트(Courant), 파반느(pavane) 등이 이 무렵에 만들어지고 유행되었던 무곡이다. 17세기가 되자 속도가 서로 다른 무곡을 한 쌍으로 묶는 방법이 독일에서 창안되어 ‘무용모음곡’이 등장한다. 프로베르거에 의해서

알르망드-쿠랑트-사라반드(sarabande)를 한 묶음으로 하는 무용모음곡의 기본이 짜여졌고, 후에 여기에 지그(gigue)가 추가되어 모음곡 형식이 완성되기에 이른다. 18세기 말에는 빈이 무곡의 중심이 되어 에코세이즈(Ecosaise)나 랜틀러(landler) 등의 새로운 무곡이 등장하는데, 랜틀러는 후일 왈츠로 발전한다.

19세기가 되자 국민주의가 음악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 결과 폴란드의 마주르카와 폴로네이즈, 보헤미아의 폴카 등 민속무곡이 크게 유행하게 되고 이러한 무곡은 쇼팽에 의해서 향훈(香薰)질은 예술음악으로 승화되었다. 또한, 요한 스트라우스 2세(1825~1899)와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왈츠 역시 예술음악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미국, 스페인, 쿠바 등이 새로운 무곡의 생산국으로 등장한다. 볼레로, 하바네라, 탱고, 판당고, 호타 등의 쿠바와 스페인계 무곡과 랙 타임(rag time)과 재즈(jazz) 등의 세력이 불만했다.

지금까지 모두 9회에 걸쳐서 소품의 역사와 분류는 방법에 의해서 서양음악의 매우 중요한 장르로 여겨지는 소품의 세계를 살펴보았다. 이 같은 고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실은 소품의 세계가 일부 제한된 예외를 제외한다면 건반음악에서 출발하여 건반음악에서 수없는 변신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건반악기는 사실상 서양음악을 이끌어 온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소품의 역사가 건반악기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예술음악의 존립이 날로 흔들리는 오늘의 상황에서 소품의 음악적 존재와 그 역사를 반추하는 일은 그래서 값진 작업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아울러 서양음악 감상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마저도 점차 힘을 잃어가는 오늘날의 우리 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그나마 가장 접근하기 쉬운 소품 감상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감성훈련에 접근하는 방법들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7회 정기연주회

클래식 속의 문학

7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난 해 7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인연을 맺은 수석 지휘자 이동신이 취임 1년을 맞아 7월 12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7회 정기연주회 '클래식 속의 문학'으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이번 무대는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작곡가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작곡한 곡들을 연주하여 원작의 느낌을 음악선율로 전한다.

첫 곡은 미국 신낭만주의의 대표적 작곡가인 바버의 관현악을 위한 '에세이' 제 1번 작품 12로 연다. 이곡은 감미로운 선율과 로맨틱한 화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문학적인 에세이와도 상통할 수 있는 구상을 보이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프랑스 작곡가 뒤키의 관현악과 호른을 위한 '빌라넬레', '빌라넬레'는 전원시(19행 2운체의 시)를 뜻한다.

그 외에도 러시아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슈킨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대본으로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중 '편지 장면', 빅토르 위고의 희곡 '왕의 장난'을 바탕으로 한 베르디의 대표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영감을 얻어 클라리넷 변주곡으로 편곡한 바시의 '리골레토' 주제에 의한 협주적 환상곡, 러시아의 전통과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을 음악적으로 잘 소화해낸 스비리도프의 '푸슈킨 단편소설에 의한 음악적 일러스트 눈보라'를 연주한다. 스비리도프의 '눈보라'는 푸슈킨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푸슈킨 200주년을 기념한 영화의 삽입 모음곡으로 작곡되었는데 운명의 장난에 의한 한 연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린 원작의 정신을 간명하고 꾸밈없이 그림을 그리듯 표현해냈다.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을 찾은 호른 주자 백승권은 네덜란드 유트레흐트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U.M)을 졸업하고 대구·대전시립교향악단 수석을 거쳐 현재 대전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림스키-코르사코프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바 있는 소프라노 박미경은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 성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최우수 졸업했다. 바시의 '리골레토' 주제에 의한 협주적 환상곡을 들려줄 정우영은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해운대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음악감독 겸 지휘자, 크로노스앙상블 리더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동신



백승권



박미경



정우영

■ 입장료 : 균일 2,000원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

2007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

선녀와 나무꾼

7월 19일 목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우천시 중극장)



지난해 선보인 여름마당 춤판 '男공쥐 vs 팔쥐'.

'2003 춘향'을 시작으로 '흥부 vs 놀부', '이쁜이 시집가는 날', '男공쥐 vs 팔쥐' 등 그동안 전통적인 소재를 해학과 신명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그려내 매년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부산시립무용단이 7월 19일 '선녀와 나무꾼'으로 2007 여름마당춤판을 연다.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은 기존의 무대를 벗어나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좁히고 관객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춤과 노래, 연기로 보는이들에게 한바탕 웃음을 선사한다.

'선녀와 나무꾼'은 범세계적으로 분포된 '백조처녀설화'

로 효의식과 함께 그로 인한 인간적 갈등, 그리고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 그에 대응하는 강한 현실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안무, 구성을 맡은 수석안무자 흥기태는 재미를 살리며 전 세대가 볼 수 있는 춤판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 2007년 마당춤판의 현시대에 보편화된 짬짬방 문화를 반영해 원작에서 묵욕하던 선녀를 짬짬하는 선녀로 각색한 것이 이채롭다.

김진영이 선녀로, 허태성이 나무꾼으로 출연하고 남지단원 김병주가 나무꾼 어머니로 캐스팅되어 해학 넘치는 무대를 꾸며준다.

■ 작품 구성

프롤로그 :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

1막. 사슴의 보은-나무하러 가세, 쫓기는 사슴을 숨겨주다, 사슴의 보은

2막. 선녀와 나무꾼의 만남- 짬짬방 풍경 I, 짬짬방에 온 선녀, 짬짬방 풍경 II : 장기자랑, 선녀의 날개 웃을 흠치는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의 만남

3막. 대가족을 이루다-선녀와 나무꾼 대가족, 하늘에 계신 부모님!, 선녀의 승천, 실의에 잠긴 나무꾼, 지상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선녀

4막. 부부의 귀향-사슴의 도움, 나무꾼 두레박 타고 올라가 선녀와 재회하다, 천마를 내어주는 선녀의 부모님, 부부의 귀향. 다시 지상으로

피날레 : 우리는 한 가족

■ 입장료 : 무료(우천시는 중극장에서 공연, 선착순 입장)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팝음악 평론가 임진모와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팝합창

7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아시아 합창단으로는 처음으로 바티칸 미사에 참가해 화제를 모은 부산시립합창단이 로마 연주일정을 마치고 귀국, 7월 24일 팝음악 평론가 임진모와 함께 '이야기가 있는 팝합창' 무대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재회한다.

이번 무대는 정통 합창음악을 비롯 7080세대를 위한 음악, 아카펠라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이 새롭게 시도하는 팝음악회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팝음악 평론가 임진모의 해설로 전 세계인들이 애창해온 추억의 팝 음악을 들으며 시원한 여름밤 추억여행을 떠난다.

전체 무대는 올디스 벳 구디스, 리듬 속으로, 아름다운 선율의 향기, 한국인이 좋아하는 골든 팝송 등 4개 장르로 나누어 다양한 팝 음악을 들려준다.

올디스 벳 구디스에서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는 파퓰러 명곡들을 들려준다. 아일랜드 민요 'Danny Boy'를 비롯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오드리 헵번이 부른 'Moon River'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삽입된 파퓰러 명작 'Once Upon A Dream' 등을 노래한다. 경쾌한 댄스음악을 소개하는 '리듬 속으로'에서는 1968년, 클리프 리처드가 발표한 'Congratulations', 1977년 아바의 빅 히트송 'Dancing Queen', 1978년 디스코시대 그룹 빌리지 파플의 곡 'YMCA' 등을 들려준다.

아름다운 선율의 향기에서는 1956년 발표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 1968년 사이먼 앤 가펩클의 히트곡인 'Scarborough Fair', 1997년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 등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팝 음악을 선곡했다.

마지막 무대는 1960년대 'Beatles Medley'를 비롯 1970년 사이먼 앤 가펩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1973년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1978년 퀸의 히트송 'We Are The Champions'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으로 무대를 꾸민다.

이번 무대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팝칼럼리스트 임진모는 경향신문, 내외경제신문사 기자를 거쳐 음반프로덕션 동인기획 실장(1991-1995)으로 활동하며 인공위성의 아카펠라 음반을 기획했다. 임진모는 2001년 음악 웹진 www.izm.co.kr을 운영하면서 방송활동과 기고활동을 하고 있다.



김강규



임진모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권 좌석율 미리 예약해주시시오.)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극장

KNN창사 12주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
특별공연

1일 일요일 오후 2:00, 6:00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20주년을 맞아 KNN이 들려주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특별공연.

이 시대의 현실을 진실되고 깊이 있게 노래하는 노래문화집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1987년 시대정신을 새기고 새로운 감성의 음악을 시도하고 있다.

프로그램

사계, 광야에서, 그날이 오면(2집), 동지를 위하여, 동물의 농장(4집), 먼 훗날(모음 하나), 젊은 그대, 나의 바람은, 정원, 나무, 먼 길, 잃어버린 말들 및 창작 신곡들, 잃어버린 말(김민기 곡), 정원(한동헌 곡) 등 수곡

입장료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KNN(1577-7600)

노엘합창단 제 47회 정기연주회

재미지휘자 박정기 초청
세계 명 성가곡의 밤

2일 월요일 오후 7:30



지휘자 박정기

1961년 ‘찬양을 통한 선교, 음악을 통한 사회정서 함양’이라는 목표 아래 부산지역 남녀 고교생 합창단으로 창단된 노엘합창단의 제 47회 정기

연주회.

이번 무대는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지휘를 맡았던 재미 지휘자 박정기를 초청, 국내 초연곡들과 명 성가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장엄미사곡’ 중 ‘키리에’(부산초연)
멘델스존/오라토리오 ‘엘리아’ 중 ‘하나님의 사랑이여 당신의 백성을 도우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멘델스존/바이올린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베를리오즈/‘레퀴엠’ 중 ‘위엄과 권세 있는 왕’(부산초연) 등 수곡

- 지휘/박정기(재미지휘자)
- 반주/김선희
- 소프라노/김정원
- 바이올린/배대진

문의 노엘합창단(622-0224, 011-875-5957, 017-551-1562)

기드온 콰이어

제 11회 정기연주회

3일 화요일 오후 7:30



남성만의 깊고 부드럽고 강렬한 톤의 음악을 들려주는 교회전문연주단체 기드온 콰이어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주 예수 내 맘에, 새벽을 깨우리라, 보혈을 지나 등 수곡

- 지휘/연명희
- 특별출연/성낙찬, 박성호, 신덕균 (기드온 테너 트리오)

· 찬조출연/CBS권사성가단(지휘/김광일), 이소정(기드온 콰이어 추천 신인음악인)

입장료 균일 30,000원(초대)
문의 연명희(011-867-6529)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6회 정기연주회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II

상생 2007

5일 목요일 오후 7:30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부산 시립국악관현악단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II ‘상생 2007’.

환경, 생태, 오염 등을 주제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여 상생하는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이번 음악회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인간의 삶을 소재로 한 서정성 넘치는 창작국악관현악곡들을 연주한다.

프로그램

이준호/창작관현악 ‘산야(山野)’(부산초연)
이준호/25현 가야금협주곡 ‘바람강’(부산초연)
유은선/창작관현악 ‘창구만들기(바람, 빛)’(부산초연)

노래와 관현악/그 땅, 그 하늘(배창희 곡), 천지여 천지여(이병욱 곡),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김선 편곡)(부산초연)

이건용/창작관현악 ‘산곡’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 협연/이명일(가야금), 박성희 · 정선희(노래)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2007 부산무용제

10일-11일 화-수요일 오후 7:30



장정윤 ‘우주너무’

창작열정 넘치는 부산 무용인들의 최고 축제인 부산 무용제.

경선을 통해 선정된 대상팀이 전국무용제 부산대표로 참가한다.

■제 1일-10일(화)

· 부산발레연구회 ‘The mission(우리의 사명은...)’(안무/박종위 · 출연/이성희, 김주목, 공문정, 박정희, 윤은정, 박종위 외)

-우리의 삶은 내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실행하는 사명의 길. 그 길은,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목적이 이끄는 길...

• 박성호무용단 '상(像)...그 일그러진 영웅'
(대본, 안무/박성호 · 출연/김철순, 박성호,
김민경, 박광호, 황대현, 김영찬, 김종현 외)
-像은 일종의 허무함 만들기다. 갈 곳 몰
라 배회하는 현대사회 속의 남성의 자화상.

■ 제 2일~11일(수)

• 메트로발레단 'Vivaldi Concerto D.7'
(안무/서라벌 · 출연/박설희, 김종오, 서라
벌, 김은우, 김숙진, 최소영, 윤세희)
-비발디의 작품 중 '12Concertos Op.3'
을 7명의 무용수가 각기 다른 7가지의 색깔
로 표현하는 발레.

• 현대무용단 자유 '2라는 건' (안무/박근
태 · 출연/김현정, 정진우, 박재현, 안선희,
박근영, 김수현, 김미리, 오새롬, 조한배 외)
-혼자가 아닌 둘이라는 관계에서의 감정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에너지들의 움직임을 춤
으로 표현.

*축하공연 장정윤순수현대무용단 '우주나
무' (안무/장정윤 · 출연/장정윤, 김영란, 엄
창홍, 조숙녀, 김현정, 김도경, 박선영 외)

입장료 일반 12,000원, 학생 8,000원

문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7회 정기연주회 클래식 속의 문학

12일 목요일 오후 7:30

취임 1년을 맞은 수석지휘자 이동신과 다
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청
소년교향악단의 제 27회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작곡가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작곡한 곡들을 선곡, 원작의 느낌



을 음악 선율로 전한다.

프로그램

바버/관현악을 위한 '에세이' 제 1번 작품
12

뒤카/관현악과 호른을 위한 '빌라넬레'

김동진/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차이코프스키/ '에프게니 오네긴' 중

'편지 장면'

박시/오페라 '리굴레토' 주제에 의한 협주
적 환상곡

스비리도프/푸쉬킨 단편소설에 의한 음악적

일러스트 눈보라

· 지휘/이동신(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
석지휘자)

· 협연/백승권(호른), 박미경(소프라노),
정우영(클라리넷)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6108)

중 크 장

인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9회 정기연주회

인코리아
보헤미아를 외치다

1일 일요일 오후 7:30

현악 중심의 '부산스트링스 챔버 오케스트
라'가 정규 2관 편성의 오케스트라로 확대,
개편되면서 2006년 새롭게 탄생된 인코리아
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9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 5번

드블작/심포니 제 8번

· 지휘/박중휘

· 협연/손시인(동아대학교 4년)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인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7-8088, 011-565-8088)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일 월요일 오후 7:30



복지관, 병원, 학교, 기업체를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
성화 기획공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프라이م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러시아 마그니타 글링카 국립음악원을 졸
업한 뉴프라이م오케스트라 지휘자 임준오가
지휘하고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링카 음
악원 최고연주자 및 지도자과정졸업하고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
는 바이올리니스트 동민 칭이 협연한다.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야마하 공식 A/S점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홀플러스 : 051) 506-7332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 5번 마단조 전악장
생상스/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롯데시/도둑까치 서곡

· 지휘/임준오(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 지휘자)
· 협연/동민 칭(바이올리니스트,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 악장)

입장료 초대

문의 임준오(816-1104, 011-842-1133)

뮤클 합창단 3rd 정기연주회-대관식미사/레미제라블

3일 화요일 오후 7:30



공연 감상동호회 뮤클 회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 뮤클 합창단의 제3회 정기 연주회.

1부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갈라콘서트로 2부는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곡들로 꾸민다. 특히 1부는 뮤지컬 클래식 감상동호회인 뮤클의 성격을 살려 세계 4대 뮤지컬 중의 하나인 레미제라블의 넘버들을 한글 가사로 번안하여 구성, 뮤지컬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금방 친숙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무대를 장식한다.

프로그램

At the End of the Day(하루 일을 마치고), I Dreamed a Dream(지난 날의 꿈), Who am I(난 누구, Castle on a Cloud(구름속 궁전), Master of the House(여관집 주인), Stars(신성), Do you Hear the People Sing(민중의 노래), In My Life(내마음의 인생) 등 수곡.

· 지휘/엄현섭
· 반주/최희경

· 솔리스트/소프라노 서일내, 알토 강영옥,
테너 이정환, 베이스 김홍섭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이상훈(010-3135-0423)

주부들을 위한 해설음악회

女時음악회

6080 추억음악회 시리즈-

그 첫 번째 이야기

4일 수요일 오전 11:00



재치 있는 아이
디어와 색다른 해
석으로 새롭고 흥
미로운 연주를 선
사하고 있는 5인조
앙상블 해피 앤 조
이가 들려주는 주
부들을 위한 해설

음악회 '女時(여자들의 시간) 음악회'.

6080의 향수를 노래하는 이번 무대는 1부에서는 영상 속 DJ의 구수한 진행으로 70년대 음악다방의 추억을 재현하고 2부에서는 4, 50대 주부들에게 익숙한 음악들로 추억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1부-DJ 용이와 함께하는 추억의 별다방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ost 중 'Rain
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등

2부-추억은 방울 방울

엘가 '사랑의 인사', 바흐 '미뉴에트', 추억
의 동요 '푸른하늘, 은하수' 등 수곡

· 연주/해피 앤 조이 앙상블

· 특별출연/DJ 용이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유엔터테인먼트(02-875-1627)

행복한 엄마를 위한 태고 음악회

Happy MaMa Concert

4일 수요일 오후 3:00

해피 앤 조이가 들려주는 행복한 엄마를
위한 태고 음악회 'Happy MaMa
Concert'.

아는 음악을 신선하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선곡한 이번 무대는 서울대학교
작곡과 출신 남유선의 능숙한 진행으로 전
문가를 초청하여 임산부의 기운을 북돋는
심신단련법을 함께 배워본다.

프로그램

1부-Happy MaMa

바흐 '미뉴에트+인벤션 1,4,8번', 영화 '내
일을 향해 쏴라' ost 중 'Rain 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등 수곡

2부 - Happy BaBy

비발디 '사계', 바흐 'G선상의 아리아', 디
즈니 애니메이션 ost 메들리-'피노키오'
ost 중 'When you wish upon a star'
등 수곡

· 진행/남유선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유엔터테인먼트(02-875-1627)

김문주 & 김진희
피아노 듀오 연주회

7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 동문으로 다양한 음악교류를
해온 피아니스트 김문주와 김진희의 듀오
연주회.

김문주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 연주
자 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네덜란드, 부산에
서 독주회, 초청연주회 등을 가졌다.

김진희는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디플
롬 과정, 최고연주자 과정, 네덜란드 마스트
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
고 독일, 네덜란드, 부산에서 독주회, 초청
연주 등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슈베르트/Fantasia f-moll fur Klavier zu
vier Handen Op. 103 D 940

미요/스카라무슈

라흐마니노프/Fantaisie Tableaux Suite
No.1 Op. 5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쇼팽의 밤

8일 일요일 오후 7:30

신라대학교 동문으로 함께 연구하고 연주
해온 음악도 김태운, 김영나, 김지혜, 정호
인이 들려주는 쇼팽음악의 밤.

프로그램

스크리빈/에튜드 작품 8 No.12
슈만/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No.1, 3,
4, 5, 6, 7, 8)

쇼팽/스케르초 작품 31, 작품 54
쇼팽/폴로네이즈 작품 53 등 수록

입장료 초대
문의 김태윤(010-7740-0845)

부산오페라연구소 동문음악회 시리즈

7월의 The Beautiful Concert 갈라 콘서트

9일 월요일 오후 7:30

각 학교 출신의 젊은 인재와 중견 예술인 및 각 학교를 빛내고 있는 유명 예술인들을 초청하는 부산오페라연구소의 동문음악회 시리즈.

첫 무대로 고신대학교 출신 신인 성악가, 중견 성악가 및 국립오페라단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와 유럽에서 활동 중인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와 앙상블을 들려준다.

출연
소프라노 김현주, 소프라노 박연경,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송승민, 테너 이승우, 테너 조윤환, 바리톤 최판수, 베이스 권영기, 베이스 김일석

· 제작 총감독, 지휘/임재우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오페라연구소(010-3038-7191)

부산오페라연구소

내 아이의 첫 번째 오페라모차르트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11일-12일 수-목요일 오후 6:00,
8:00 13일 금요일 오후 4:00, 8:00



유럽 최고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어린 이오페라극장(KINDER OPERA)' 이 선정한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오페라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모차르트가 12세에 작곡한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는 18세기 12살 모차르트의 시각으로 본 사랑 방정식을 재미있게 묘사한 작품이다.

도시의 화려한 여자들에게 한눈을 파는 한가로운 시골마을의 양치기 '바스티앙'과 여자친구 '바스티엔느', 악살스러운 마법사 '콜라' 등 순수하고 정직한 사랑을 하는 순박한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18세기 유행했던 대화가 있는 음악극 '징슈필 오페라' 작품으로 누구나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 제작 총감독/임재우
- 예술감독 및 지휘/윤상운
- 연출/김보영
- 연주/Camaratta Busan

출연
장은영, 이수정, 장은녕, 박수진(이상 바스티엔느, 소프라노), 전병호, 우원식, 박용선(이상 바스티앙, 테너), 권영기, 김일석, 고정현(이상 콜라, 바리톤)

입장료 R석 45,000원 · S석 25,000원
A석 15,000원 · 학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오페라연구소
(747-1567, 010-3038-7191)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및 수상팀 공연

'Sing your Dream'

14일 토요일 오전 10:00
(공연은 오후 7:30)



합창음악 붐 조성을 위해 (재)한국합창조직원위원회가 매년 마련하는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는 2005년 APEC 성공회 및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며 새롭게 창설되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전라권 등 전국의 합창단이 참가하여 매년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

콩쿠르 참가자들은 7~19세 어린이 및 중고등부 합창단으로서,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부와 중고등부로 나뉘어 경연을 펼친다.

올해는 국내 22개 청소년합창단 1,200여 명이 참가, 그동안 같고닮은 경연을 펼치고 오후 7시 30분부터는 시상식과 수상팀 공연을 갖는다.

참가단체

청주 안젤루스도미니 합창단(2005년 제1회 한국청소년 합창 콩쿠르 대상 수상팀), 서울 나다나엘 소년소녀 합창단, 인천 효성주니어 코랄, 춘천 CBS 소년소녀 합창단, 부산 CBS 어린이 합창단 등 어린이부 13개팀 원주 학생중학교 합창단(2006년 제2회 한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역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치탑앞
(미니텔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평도원티제, 경주월드, 경안미미월드 연중계속 예매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 ~ 3월까지의 캘린더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대!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국청소년 합창 공쿠르 금상 수상팀, 목포 정명여고 합창단, 마산 제일여중 합창단, 마산 제일여고 합창단 등 청소년부 10개팀

입장료 무료
문의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

심현숙 부산발레단의 함께 나누는 발레공연
한·일 발레 교류 공연
15일 일요일 오후 5:00



사이토 아키라

발레의 대중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심현숙 부산 발레단과 일본의 아사 발레단이 함께 하는 한, 일 발레교류 공연. 아사 발레단은 일본 민족무용단

에서 무용감독을 역임하고 문화친선 사절로 세계 45개국 140개 도시에서 공연 활동을 펼친 일본발레협회 규슈북부지부 지부장 사이토 아키라가 이끌고 있는 발레단이다.

프로그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1막, 3막 발체(재안무/심현숙·출연/이영철, 윤경, 김현정, 김현애, 이수정, 이소영, 박혜연, 박지희)

창작 발레 '흑과 백' (안무/심현숙)

일본 아사 발레단 창작 발레(안무/사이토 아키라)

입장료 무료
문의 심현숙(753-5080)

해설이 있는 음악회
체코 필하모닉 소년소녀 합창단 내한공연

17일 화요일 오후 3:00, 7:30



1932년 창단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재능 있는 어린이들을 키워낸 체코 필하모닉 소년소녀 합창단 내한공연.

1998년에 수상한 유러피안 그랑프리(European Grand Prix)를 수상한 체코 필하모닉 소년소녀 합창단은 합창단 정기공연을 비롯 주요 오케스트라, 국립 프라하 극장, 프라하 주립 오페라, 그리고 외국 오페라 앙상블, 주요 음악 페스티벌과 콘서트투어를 가지는 등 유럽전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아나운서 황현정의 해설로 유럽의 고전에서부터 체코의 현대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체코와 세계의 합창곡/스메타나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 중 도입 합창,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슈베르트의 등장미 등

체코의 작곡가 마하의 불의 경축 등 수곡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파카트코리아(031-704-0433)

예술기획 초청
SIS 앙상블 연주회
18일 수요일 오후 7:30



2005년 피아니스트 김주미, 바이올리니스트 김성미, 첼리스트 신정희, 피아니스트 정수영, 피아니스트 이혜영이 활동하고 있는 SIS앙상블은 전문 연주자로,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이 음악을 통하여 따뜻한 사랑나누기 위해 아름다운 연주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For One piano/Four hands)

멘델스존/피아노 트리오 제 1번 라단조 작품 49

칠레아/오페라 '아들리의 여인' 중 '페데리코의 탄식'

라벨/볼레로(Transcription for two pianos)

· 특별출연/테너 전병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팝음악평론가 임진모와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팝합창
24일 화요일 오후 7:30



정통 합창음악을 비롯 7080세대를 위한 음악, 아카펠라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이 새롭게 시도하는 팝음악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팝음악 평론가 임진모의 해설로 추억의 팝 음악이야기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올디스 벅 구디스/ Boy, Moon River, Once Upon A Dream 등
리듬 속으로(경쾌한 댄스음악)/YMCA, Congratulations, Proud Mary, Dancing Queen

아름다운 선율의 향기/Love Me Tender, Scarborough Fair, Ben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골든 팝송/
Beatles Medley,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등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극단 예인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베르너 홀츠바르트의 그림동화를 상상력이 풍부한 뮤지컬 작품으로 만든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는 땅위로 고개를 내밀다가 똥 세례를 받은 두더지가 그 똥이 누구의 똥인지 확인하러 다니면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개된다.

· 대본, 연출/김영주

출연

김영주, 박기선, 주애경, 오하영, 엄태영, 김미선, 김진수 외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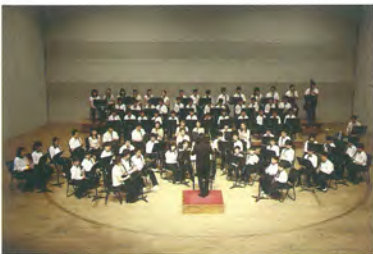
A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정기회원 3,000원
할인)

문의 원스테이지(1588-0881)

부산아마추어클라리넷 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23일 월요일 오후 7:30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음악과 클라리넷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 7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 클라리넷 과 이어 산하 부산 아마추어 클라리넷 앙상블의 제 3회 정기연주회.

아마추어 클라리네티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 아마추어 클라리넷 앙상블은 이번 연주에서 '백조의 호수' 중 '정경', 오블라디 오블라다 등 다양한 클라리넷곡들을 들려준다.

· 지휘/손호상(김해교향악단 부지휘자)

입장료 무료

문의 손호상(011-583-2810)

박영미(011-878-5508)

소극장

D&P 뮤직스쿨 정기연주회

한여름 밤의 멜로디

12일 목요일 오후 7:30

독일 Rostock 음대 최고 음악인과정을 졸업하고 귀국, 현재 동의대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소년오케스트라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타악주자 김정우의 D&P 뮤직스쿨에서 들려주는 한여름밤의 멜로디.

프로그램

타악기 연주/난타

스트라우스/피치카토 폴카

동요메들리/에델바이스, 캐논 등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등 수곡

문의 D&P 뮤직스쿨(704-3999)

야외무대

부산시립무용단 2007 여름 마당춤판

나무꾼과 선녀

19일 목요일 오후 8:00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인 동화와 설화를 해학과 신명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재구성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이 2007년 새롭게 선보이는 마당춤판 '선녀와 나무꾼'.

춘향(2003년), 흥부 vs 놀부(2004년), 이쁜이 시집가는 날(2006년), 男 공쥐 vs 팔쥐(2006년)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선녀와 나무꾼'은 선녀와 나무꾼의 사랑과 효행, 그리고 가족애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 시립무용단의 끼와 열정으로 재미있게 담아냈다.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출연/김진영(선녀), 허태성(나무꾼), 김병주(어머니) 외 부산시립무용단 전단원

입장료 무료(우천시 중극장)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문화회관 버스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버스 - 19, 51-1, 68, 134



GloVil
Art Hall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하는 국제수준 어쿠스틱연주, 녹음출판에 있습니다 _글로벌아트홀

레코딩스튜디오 • 글로벌콘서트바토리
공연대관|녹음,음반|연습실|세미나



GloVil 문화예술원
Culture & Art Center

051-505-5995 glovil.org / glovil@paran.com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 지하철3호선 미남역 1번출구 5분거리

- 음악
- 연극
- 무용
- 아동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늘원아트홀(631-0660)
- 너른소극장(622-3572)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미리내소극장(504-2044)
- 민족극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악

어린이를 위한 라이브 클래식음악회

브레멘 동물음악대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00,
11:00, 6월 30일-7월 1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3일(화)-8일(일) 평일 오전 10:00,
11:00, 주말 오후 2:00, 4:00
가람아트홀



그림형제의 동화를 소재로, 극중 동물들을 표현한 라이브연주와 동화연구가의 이야기로 펼쳐지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음악회.

- 예술감독/창진웅
- 연주/박미은, 원영아, 김선아(피아노), 손경균(클라리넷), 김정우(타악기), 이재성(첼로), 구원모(성악)
- 동화구연/양윤주, 손보향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공연기획(626-6664)

이성은 피아노 독주회

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베를린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취득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이성은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이탈리아 협주곡 바장조 BWV 971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13번 작품 27-1
그리그/피아노 소나타 마단조 작품 7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이성은(010-7580-0612)

PBC 화요일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4:00, 7:30
(3일 오후 7:30, 9:00, 10일
오후 7:30, 19일 목요일 오후 7:30
공연 추가) 가톨릭센터 소극장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2007 여름음악축제.

■3일 오후 7:30, 9:00

시사이 코리아 잉카음악축제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라도르
오타발로(Otavalo) 지역의 원주민 청년들
로 구성된 그룹 '시사이(SISAY)'의 남성
5인조 밴드 '시사이 코리아'의 무대.

■10일 오후 7:30

다비드첼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2006년 6월 부산, 경남의 현악연주자들로
결성된 다비드첼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 지휘/김병수
- 재즈피아노/연관호

■17일 오후 4:00, 7:30

남성성악양상블 4+1 초청연주회

테너 서명보, 김동국, 오동주, 김지호와
베이스 권영준 등 5명의 남성성악가들로
구성된 남성성악양상블 4+1 초청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이탈리아 가곡과 칸초네
메들리를 들려준다.

■19일 오후 7:30

새음악회 제 2회 정기연주회

대학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있는 젊은 연
주자들의 패기넘치는 무대.

■24일 오후 4:00 Summer Flute
Festival with Ensemble

플루티스트 송정목과 프리미앙양상블, 하
가람양상블, 소노래양상블, 소리테양상블,
피아니스트 차지명이 함께하는 썸머 플루트
페스티벌.

■24일 오후 7:30

Summer Flute Festival

플루티스트 이하룡, 이상창, 김인호, 윤진
주와 함께하는 플루트 앙상블의 밤.

■ 31일 오후 4:00

플루티스트 김인호, 정병태 듀오콘서트
노모스 플루트앙상블, 그레도 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김인호, 정병태의 듀오무대.

■ 31일 오후 7:30

그레도 플루트 트리오 초청연주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오페라단 가야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4일(수)~9일(월)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와 함께 모차르트 3대 오페라 부파 중 하나로 섬세한 감성 묘사가 뛰어난 오페라 '코지 판 투테'.

- 예술감독/이창균
- 연출/김홍승 · 지휘/박중휘
- 연주/부산 메트로폴리탄 심포니오케스트라
- 출연/이재란, 진광숙, 김행제, 장은영, 이은미, 이윤순, 박영경, 전영주 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오페라단 가야(747-6139)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5일은 대공연장)

■ 4일 다비드첼버오케스트라 인 재즈

그동안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드는 크로스 오버 무대로 대중들과 만나온 다비드첼버오



케스트라 초청무대.

- 지휘/김병수
- 재즈피아노/연관호 · 해설/박진홍

■ 11일 여수희 어린이합창단 '멜로디'

창단연주회
백화점 문화센터 어린이 성악반 수업을 지도해온 소프라노 여수희의 제자들로 결성된 '멜로디' 어린이합창단 창단연주회.

- 해설/오동주

■ 18일 임지민 바이올린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영재입학) 1학년에 재학중인 임지민 바이올린 독주회.

- 해설/김윤선

■ 25일(대공연장)

기타리스트 김윤섭 재즈 콘서트

1부 재즈의 탄생과 성장, 2부 재즈와 대중문화 등 재즈의 모든 것을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재즈 콘서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박진홍(017-563-7966)

아지무스오페라단 초청

테너 장호진 독창회

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제주대학교와 이태리 베르디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테너 장호진 초청 독창회.
프로그램
스카를 라티 / 마음 속에 느끼네
슈베르트/음악에 신귀복/얼굴 등 수곡

· 피아노/김현아

입장료 초대

문의 손욱(011-9520-4649)

부산신포니에타 제 59회 정기연주회

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순회연주회, 해외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은 부산신포니에타의 59번째 정기연주회.

부산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연주무대를 통해 탁월한 연주력과 해석력으로 주목받아온 피아니스트 박선재의 협연으로 펼쳐진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서곡 다장조
- 쇼팽/피아노협주곡 제 2번
- 하이든/심포니 제 44번 등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영희(011-9519-0448)

품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문화회관 협약체결
부산문화회관 직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특별우대

■ 예약문의: 협진협력병원 경우/ 진료의뢰센터 (051-990-6613)



1, 2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협진협력병원에서, 3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이시여분병원 · 양정민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외 고려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알남동 34번지 602-702
대표전화 (051) 990-6114
전화예약 (051) 990-6900
응급의료센터 (051) 990-119
임예명결핵센터 (051) 990-5051
진료의뢰센터 (051) 990-6613
International Clinic (051) 990-6155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한여름밤의 음악회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와 소프라노 박현정, 테너 강학윤, 장은익이 우리귀에 친숙한 클래식곡과 가곡, 영화주제곡 등을 들려준다.

· 지휘/오충근

입장료 초대

문의 임병원(620-4917~9)

부산뮤즈플룻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5년 2월 플루티스트 강선아이 제자들로 결성된 부산뮤즈플룻앙상블은 그동안 두 차례의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연주회, 초청연주회 등을 가져왔다.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백인아(017-590-4656)

소프라노 최선희 독창회

1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최선희 독창회.

경성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태리 CSM아카데미에서

디플롬을 취득한 최선희는 그동안 독창회를 비롯 부산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과의 협연무대, 오페라 '돈조반니', MBC목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624-1991)

제 13회 앙상블 클라시아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12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저녁시간대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앙상블 클라시아가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브런치 콘서트.

· 협연/하지행(해금)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앙상블 클라시아(506-6305)

주부들을 위한 해설음악회 女時 추억은 방울방울

13일 금요일 오전 11:00
시민회관 소극장

영상 속 DJ가 진행하는 추억의 음악다방을 통해 비틀즈의 주옥같은 명곡에서부터 추억의 동요, 어릴 적 많이 들던 클래식 등 4,50대 주부들을 위한 6080 콘서트가 해피엔조이 앙상블의 연주로 펼쳐진다.

· 음악감독/유중수

· 연주/전해연(피아노), 고성현(바이올린), 김재운(비올라), 김용식(첼로), 이상욱(클라리넷)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유엔터테인먼트(02-875-1627)

행복한 음악을 위한 태교음악회

해피 마마 콘서트

13일 금요일 오후 3:00
시민회관 소극장

해피엔조이 앙상블이 임신부들의 행복한

태교를 위해 귀에 익숙한 클래식과 영화음악, 가요 등을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유엔터테인먼트(02-875-1627)

트럼펫 연주자 주현과 함께 즐기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4일 토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트럼펫주자 주현과 글로벌라이어가 출연, 청소년들이 클래식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한 여름 밤, 음악의 열정

18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95년 창단된 이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동아원드앙상블(지휘/정우영)과 베이스 김태형, 가수 최대호, 이주량이 출연, 한 여름 밤 무더위를 식혀줄 열린 음악회.

입장료 VIP 20,000원 · R석 14,000원

학생 5,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교사오케스트라 에듀필하모니 제 13회 정기연주회

1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9년 부산, 경남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교사오케스트라

에듀필하모니는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어린이와 함께 하는 음악회, 교과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박종원 · 협연/소프라노 박현정

입장료 초대

문의 양미향(011-9537-9303)

인세난띠 플루트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19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이태리어로 '교사들'을 뜻하는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연주단체 인세난띠 플루트앙상블의 정기연주회.

· 출연/한경민, 차은주, 윤혜정, 박미현, 김하영, 김민정, 정수정, 전해란
· 특별출연/김두홍(테너), 이에린(첼로)

입장료 초대

문의 강미정(018-406-6169)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2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 경남지역의 젊은 타악기 연주자들로 결성된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이 타악기

의 역동적이면서도 파워풀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윤현옥(010-4584-1083)

남성성악앙상블 4+1 정기연주회

2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테너 서명보, 김동국, 오동주, 김지호와 베이스 권영준 등 5명의 남성성악가들로 구성된 남성성악앙상블 4+1 정기연주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서명보(010-2400-3994)

부산신포니에타 특별연주회

영 비루투오소 데뷔콘서트

2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신포니에타 협연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재능있는 젊은 연주자들의 무대.

· 지휘/노태철

· 출연/김영민(줄리어드예비학교, 바이올린), 이송은(서울예고 1년, 피아노), 이수민(부산예고 1년, 피아노), 민서원(부산대학교 3년, 비올라)

입장료 초대

문의 김영희(011-9519-0448)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27일 금요일 오후 7: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국악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신명나는 우리소리와 춤을 선사하는 국립국악원의 '찾아가는 국악원'.

입장료 무료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321~3)

엄마와 아가랑 함께 즐기는 행복한 음악회

27일 금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그린샬레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요들송과 다양한 악기체험을 할 수 있는 이색무대.

입장료 엄마랑 아가랑 10,000원

엄마 7,000원 · 아가 5,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에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2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31일 화요일 오후 3:00,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98년 창단 이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우리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온 퓨전시나위 에타래가 방향을 맞춘 청소년을 위해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051-740-1700

www.busanaquarium.com



마련한 청소년음악회.

프로그램

조익래/리코더 4중주를 위한 'Arary'

양방언/제주의 왕자

정세윤/개구리 등 수록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퓨전시나위 예타레(011-594-9124)

JK양상블과 함께하는 해설음악회

29일 일요일 오후 2:00, 5:00

시민회관 대극장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추구하는 JK양상블이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을 선곡, 재미나는 해설로 클래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2007 부산기타페스티벌

29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이 매년 마련하는 부산기타페스티벌 2007년 무대.

프로그램

스페인 민속음악/룸바 플라멩고

줄리아니/대서곡

투리나/소나타 작품 61 등

· 출연/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기타리스트 장대건, 호세리플라멩고기타양상

블, 광주클래식기타합주단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011-9342-0524)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음악은 내친구

31일 화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청소년들의 교과과정에 필요한 클래식 연주와 함께 시대별 작곡가 및 음악전문용어 해설, 공연감상 에티켓 등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청소년 해설음악회.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손옥(011-9520-4649)

연극

변현주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

6월 15일(금)-7월 15일(일)

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5:00(월-목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두 자매의 회고를 통해 가부장적 제도에 억눌려 살다간 어머니의 거친 삶을 살갑게 그려낸 연극배우 변현주의 1인극.

· 작, 연출/이성민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극단 새벽(245-5919)

비보이 퍼포먼스 B SHOW

6월 15일(금)-7월 31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 7:00

국도 B-boy전용관

현란한 비보이와 최고의 비트박스, 그리고 섬세한 자극의 힙합댄스 팝핀, 락킹 등 힙합의 모든 것을 보여줄 비보이 퍼포먼스.

입장료 일반 50,000원 · 학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원스테이지(1588-0881)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6월 29일(금)-7월 29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여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섯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다양한 사랑과 주제를 이야기하는 뮤지컬.

· 작, 연출/위성신

· 출연/맹상영, 조민정, 최은석, 김소연, 오의식

입장료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극단 에저또 육남매

6월 29일(금)-7월 1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1960년~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부모없이도 씩씩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육남매의 일상을 구수한 사투리와 웃음으로 그려낸 작품.

· 작/김문홍 · 연출/최재민

· 출연/이지훈, 정재훈, 구윤희, 차동현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극단 에저또(852-9161)

낭만 수사실

6월 29일(금)-8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 소극장

소심한 범인 소심한과 사건을 과대 포장하려는 시경 경찰들이 펼치는 황당한 이야기.

· 작, 연출/김만중

· 출연/김진욱, 양진억, 김우석, 장나운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6/29-7/17 프리뷰 40% 할인,
7/17 이후 예매시 평일 30%,
주말·공휴일 20% 할인)

문의 문화공간 살터(611-8518)

바리데기

10일 화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6 밀양여름 공연예술축제 젊은 앙상블 연극상 수상으로 화제를 모은 연극 '바리데기'는 전통설화인 바리데기 설화를 현대적인 연희양식

으로 새롭게 표현한 작품이다.

입장료 VIP 20,000원 · R석 14,000원
학생 5,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부산배우협회 정기공연 생각 중

12일-13일 목-금요일 오후 8:00,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5: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현대인 누구나 가지는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가?'란 질문으로 진행되는 '자아발견'의 연극.

· 작, 연출/오치운
· 출연/방도용, 백길성, 이정비, 강원재, 권미영, 최미리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예매시 50% 할인)

문의 오치운(016-639-8348)

마당극 '강'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연극제 인기상을 수상한 '염쟁이 유씨'의 유순웅이 연출하고 제 19회 전국민족극한마당 셋별관대상을 수상한 배우 이충하가 출연하는 마당극 '강'.

강을 따라 펼쳐지는 우리 민족의 삶이 구성진 소리와 신명나는 춤사위, 전통놀이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입장료 VIP 24,000원 · R석 20,000원
학생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한국공연 15주년 기념 뮤지컬 년센스

14일(토)-2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공휴일 오후 3:00, 6:30
동아대학교 석당홀



식중독으로 숨진 동료 수녀들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벌이는 다섯 수녀의 좌충우돌 소동이 신나는 노래와 춤, 개그로 펼쳐지는 뮤지컬 '년센스'.

· 원작/단 고진 · 연출/박진선
· 출연/황수경, 박정희, 오지연, 이윤희,
윤수미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학생 3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뮤지컬 찰리 브라운

7월 14일(토)-9월 1일(토)
평일 오후 4:00,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어늘하지만 착한 마음씨의 찰리 브라운과 그의 친구들의 일상을 통해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철학적인 유머를 담아낸 뮤지컬 '찰리 브라운'.

· 원작/찰스M. 슐츠
· 출연/하강웅, 성준서, 이주나, 오소연 외

입장료 균일 25,000원

(7/14~7/31 프리뷰 평일 오후 4:00
10,000원, 오후 8:00 15,000원,
토·일·공휴일 20,000원)

문의 (주)AN시티(1644-4484)

국민모녀연극 친정엄마

1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16일 월요일 오후 4:00,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엄마의 사랑과 모녀기간의 절절한 마음을 그린 작품이다.

· 원작/고혜정
· 각색/문희
· 출연/고두심, 장

영남, 서은경, 이승희, 전국향, 김대건 외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그 남자 그 여자

7월 18일(수)-8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수줍은 사내 커플과 풋풋한 대학생 커플을 중심으로 운명적인 만남에서부터 핑크빛 사랑, 쓰라린 이별, 아련한 추억까지 사랑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린 감성 연극 '그 남자 그 여자'.
·출연/감독, 김철기, 반미정, 김나미 외
입장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20,000원
(7/18일~7/20일 프리뷰 50% 할인)
문의 (주)코엔(1544-3164)

지니스토리-The Best

20일-22일 금-일요일 오후 7:30
열린소극장



그 동안 무대에 올려졌던 마임이스트 김세진의 단편들 중 파리, 바퀴벌레, 입맞춤, 강아지, 어느 광대 이야기, 사진사 등 여섯 작품을 옴니

버스극으로 엮은 마임극.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예매/12,000원 · 8,000원)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극단 포구 패션 오브 빌라도

24일-26일 화-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성서에서 예수를 재판하고 십자가형을 내렸던 유대총독 빌라도를 주인공으로, 그의 두려움과 고뇌, 회개를 그린 창작극.

·작, 연출/홍성현
·출연/허성조, 이용희, 엄준필, 김은미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극단 포구
(632-4550, 010-8831-1958)

김강균의 판줄

28일 토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야외놀이마당



중요무형문화재 줄타기 예능보유자인 김강균이 펼치는 전통연희극 '판줄'.
입장료 무료
문의 울속도문화회관(220-5321~2)

무용

2007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4일(수)-8일(일) 해운대 야외무대,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예노소극장



야외공연 '바다·춤', 중견무용인의 밤, 젊은 안무가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는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 젊은 작가전: 5일(목)-6일(금) 오후 7: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5일/또 다른 음모(안무/김종덕), 汜-역(안무/신은주), Melody(안무/A.Messerer), 구걸을 하다(김남진)

· 6일/다만 바람이 분 것이다(안무/남선주), 순간(瞬間)(안무/김옥련), 춤을 노래하라(안무/최병규), Twin Fish(안무/마호 수미지)

■ 국제무용인의 밤: 7일(토) 오후 7: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역(驛) 물의 정거장 중(안무/최은희), 호두 까기인형 중 'pas de deux' (안무/V.Vainonen), '고백' 중에서(안무/남정호), 달의 저편(안무/김선미), 부재의 인간, 공간의 춤만(안무/Marc Vincent)

■ 바다·춤: 8일(일) 오후 5:00
해운대해수욕장 야외특설무대

-바다에 뜬 푸른 달(안무/정재만, 차수정), 부재의 인간, 공간의 춤만(안무/Marc

Vincent), 여름·붉은 태양아래서(안무/신정희), 한여름 낮의 춤(안무/남정호), 신데렐라 중 'pas de deux' (안무/R. Zakharov), 생명·물·살아있는 에너지(안무/이영희)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바다·춤은 무료)
문의 경성대학교 무용학과(620-4964)

댄스컬 여자, 사랑에 미치다

28일 토요일 오후 8:00,
29일 일요일 오후 5:00,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광역시 무대공연 지원작으로 선정된 크레용 댄스 프로젝트의 '여자, 사랑에 미치다'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서른살 그녀의 수줍은 사랑이야기를 그린 댄스컬이다.

·대본/최정혜 ·안무/이대건
·연주/이우석(노래), 전형진, 심현정(피아노), 김정훈(드럼)
입장료 VIP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7/7일까지 예매시 50% 할인)
문의 이대건(010-7703-7969)

2007 부산국제해변무용제

7월 31일-8월 6일 화-월요일
오후 7:00 광안리해변 특설무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독일, 일본, 스위스, 러시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 10개국

33개팀이 참가하는 부산국제해변무용제.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국제해변무용제 추진위원회
(642-0943)

아 동 극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7일-8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나무인형 피노키오의 신나는 모험담이 재
미있는 마술쇼와 함께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 작, 연출/오계영

· 출연/박윤미, 송판수, 이선화, 김기양 외

입장료 균일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00원 할인)

문의 (주)원스테이지(1588-0881)

인형뮤지컬 청개구리

7일-8일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엄마 말이라면 무엇이든 반대로 하는 어
리석은 청개구리의 일화를 춤과 노래가 함
께하는 인형뮤지컬로 제작한 작품.

입장료 균일 12,000원

(예매시 2,000원 할인)

문의 극단 한울(1544-1718)

가족뮤지컬 걸리버 여행기

13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후크선장을 따라 동화의 나라로 떠나게
된 의사 걸리버의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 작, 연출/신길용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마법전사 유캔도

14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1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KBS 부산홀

고난도 액션장면을 특수효과와 영상 등을
통해 그대로 재현한 '마법전사 유캔도'.

입장료 R석 35,000원 · S석 30,000원

문의 소리엔터테인먼트(755-4545)

덩실덩실 개비개비

20일 금요일 오전 10:30,
오후 4:00,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설화 속 도깨비 이야기를 소재로 판소리,
탈춤, 민요 등 국악과 숨바꼭질, 제기차기
등 전래놀이를 결합시킨 국악체험 놀이극.

· 작, 연출/이덕인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문화공간 살터(611-8518)

가족뮤지컬 플란다스의 개

20일 금요일 오전 10:20, 11:20,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어려운 현실에서도 용기를 잃지않는 네로
와 애견 파트라슈의 우정을 그린 가족뮤지컬.

· 예술감독/고진희 · 연출/이동재

· 출연/안인상, 정상현, 이화영, 조형태 외

입장료 균일 15,000원(7/15일까지 조기예
매시 30%, 일반예매시 20% 할인)

문의 아트씨티(080-050-3355)

가족뮤지컬 캣츠2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최고의 뮤지컬로 사랑받고 있는 '캣츠'를
어린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
록 새롭게 각색한 가족뮤지컬 '캣츠2'.

· 출연/진태이, 정지영, 서재하, 김서현 외

입장료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5,000원 할인)

문의 (주)원스테이지(1588-0881)

인형아, 친구하자

21일 토요일 오후 2:00, 4:30,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어린이들과 친숙한 인형을 의인화하여 가
족간의 사랑과 친구간의 우정을 그린 창작
뮤지컬.

· 작, 연출/강민영 · 작곡/백현주

· 특별출연/배우 이현주(부산시립극단
단원), 테너 전병호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강민영(010-3156-3373)

영 화

동시대 유럽 거장전

6월 21일(목)-7월 8일(일) 오전
11:30, 오후 2:00, 4:30, 7:00)
(월요일 휴관) 시네마테크 부산



포르투갈의 전설
마놀 드 올리베이라에서부터 스페인
의 영화사인 빅토르 에리세, 가난한
이웃의 영원한 벗
벨기에의 다르텐
형제 등 유럽영화

의 거장 8인의 대표작 18편이 상영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콘 서 트

테이 부산콘서트

7일 토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의 PS엔터테인먼트(758-5877)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2007 최현우 매직콘서트

2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2일 일요일 오후 2:00, 6:00
KBS 부산홀



화려한 입담과 버라이어티한 공연으로 사랑받아온 최현우의 매직콘서트.

입장료 VIP 70,000원 · R석 60,000원
A석 40,000원

문의 좋은날 음악기획(621-2277)

2007 나나 무스쿠리 페어웰 투어

28일 토요일 오후 7:30
KBS 부산홀

입장료 VIP 190,000원 · R석 160,000원
S석 90,000원 · A석 70,000원

문의 소리엔터테인먼트(755-4545)

키보이스 콘서트

28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행 사

제 63회 시울림 시낭송회

11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1부 시낭송에 이어 2부에서 김중근 초대 부산시립미술관장의 교양특강 '현대미술의 이해'로 마련되는 시울림 시낭송회.

· 초대시 낭송/권정일, 이규열, 조해훈
· 사회/한창욱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음(017-573-6080)

동물아카데미 악어 대 탐험전

7월 13일(금)~8월 26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7시

입장료 일반 12,000원 · 어린이 10,000원

문의 대한민국동물학교(740-3533)

걸리버의 세계로

7월 14일(토)~8월 26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곤충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로봇곤충 대 탐험전.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7시

입장료 일반 12,000원 · 어린이 10,000원
(20인 이상 단체 8,000원)

문의 (주)가진엔트라(740-3461~3)

뮤클 & 영광도서가 함께하는

부산 시민을 위한 해설이 있는 영상회

매주 일요일 오후 3:00(29일은 오후 6: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1일 오페라 아이다(1985년 밀라노 라 스칼라 가극장 실황공연)

· 8일 뮤지컬 '빅터 빅토리아'

· 15일 멘델스존의 발레 '한여름 밤의 꿈' (퍼시픽 노스웨스트 발레단 공연)

· 22일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 29일 뮤클 합창단 영광도서 영상회 2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입장료 무료
문의 이상훈(010-3135-0423)

전 시

한국현대미술속의 자연

3월 9일(금)~7월 17일(화)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부산박물관 국제교류전 상하이박물관 소장 중국 고대 청동기 · 옥기

6월 15일(금)~9월 9일(일)
부산박물관 특별전시실

문의 부산박물관(624-6341~2)

서양화 소품전

7월 2일(월) ~ 7월 24일(화)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이선화 사진전

7월 6일(금)~7월 31일(화)
부산 프랑스문화원 전시실



문의 부산 프랑스문화원(465-0306)

봉문스님 사진전 '안거'

7월 10일(화)~7월 15일(일)
영광도서 갤러리



철저하게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선방과 스님들의 수행모습을 찍은 특별한 사진전.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7/1(일) 14:00, 18:00	노래를 찾는 사람들 특별공연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10%	KNN (1577-7600)
	8/22(수) 11:00, 16:00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균일 10,000원	20% (1인 4매)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7/11(수) - 7/12(목) 18:00, 20:00 7/13(금) 16:00, 20:00	내아이의 첫번째 오페라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R석 45,000원 · S석 25,000원 A석 15,000원 · 학생 10,000원	20%	이슬리스티 (747-1567)
	7/21(토) - 7/22(일) 12:00, 14:00, 16:00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3,000원 할인	(주)원스테이지 (1588-0881)
시민회관 소극장	7/7(토)-7/8(일) 13:00, 15:00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균일 15,000원	3,000원 할인	(주)원스테이지 (1588-0881)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7/15(일) 15:00, 18:00 7/16(월) 16:00, 20:00	국민모녀연극 천정엄마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10%	AN시티 (1644-4484)
	7/21(토) - 7/22(일) 12:00, 14:00, 16:00	가족뮤지컬 '캣츠2'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5,000원 할인	(주)원스테이지 (1588-0881)
KBS부산홀	7/21(토) 15:00, 19:00 7/22(일) 14:00, 18:00	2007 최현우의 매직콘서트	VIP 70,000원 · R석 60,000원 A석 40,000원	10% (4인이상 20%)	좋은날음악기획 (621-2277)
국도 B-boy전용관	6/15(금) - 7/31(화) 평일 20:00 토요일 16:00, 20:00 일 · 공휴일 15:00, 19:00	비보이 퍼포먼스 B SHOW	일반 50,000원 학생 40,000원	20%	(주)원스테이지 (1588-0881)
동아대학교 석당홀	7/14(금) - 7/22(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30 일 · 공휴일 15:00, 18:30	한국공연 15주년 기념 뮤지컬 '넌센스'	R석 40,000원 S석 30,000원	10%	AN시티 (1644-4484)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8/11(토) - 8/19(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00 일 · 공휴일 15:00, 18:00 (월요일 공연없음)	로맨틱 코메디 뮤지컬 '김종욱 찾기'	R석 45,000원 S석 35,000원	10%	AN시티 (1644-4484)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7/18(수) - 8/5(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00 일요일 15:00, 18:00 (월요일 공연없음)	그 남자 그 여자	일반 30,000원 학생 20,000원	평일 20% 주말 10% (7/18-7/20 50%)	(주)코엔 (1544-3164)
	8/8(수) - 8/26(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00 일 · 공휴일 15:00, 18:00 (월요일 공연없음)	강풀의 순정만화2 '바보'		평일 20% 주말 10% (7/8일까지 예매시 30%)	
가마골 소극장	6/29(금) - 7/29(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 · 공휴일 15:00, 18:00 (월요일 공연없음)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일반 25,000원 학생 20,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교(245-8911)

· 남구/면학도서관(경성대 앞 623-9404)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 북구/대한도서(덕천로터리 332-7339)

Recommended Performances in July

Contemporary European Directors

21st(Thu), June - 8th(Sun), July 11:30 am, 2:00, 4:30, 7:00pm Cinematheque Pusan



This is good chance for big movie fans. You can appreciate representative contemporary European directors' works. From Manoel de Oliveira, legend of Portugal to poet of film in Spain, Victor Erice, you can enjoy them.

Ticket : All Seat 4,000Won

For More details : 742-5377, cinema.piff.org

'Sanseng 2007', Echo-music Concert Thinking of Nature And Human

The 136th subscription concert by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5th(Thu)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is is the second concert since last year. It's main theme is about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 So you can listen to original traditional music expressed in a sensitive feeling about the beauty and value of nature and our daily lives.

· Con / Park Hosung · Gayageum / Lee Myungil,

· Song / Park Sunhee, Jung Sunhee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s : 607-6110, 607-6070

Czech Philharmonic Children's Choir Visiting Concert

17th(Thu) 3:00,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Czech Philharmonic Children's Choir has raised thousands of talented children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32. Meeting its fame, it has been awarded European Grand Prix in 1998 for its excellent performance.

This time they present you fantastic European repertoires from classic to Czech modern music with commentator of announcer Hwang Hyeonjung.

Ticket : R 30,000Won · S 20,000Won · A 10,000Won

For More details : 031-704-0433

Lumberjack and Angel, 2007 Summer Outdoor Dance Festival by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19th(Thu) 8:00 pm, Busan Cultural Center Outdoor Stage(if rainy, Medium Theater)



It's an old famous folk story in Korea. But this is reborn by passion and adaption by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They inspire this story with life and touching dance expressing love of lumberjack and angel and their family.

· Dance composition and design/ Hong Kitae

Ticket : free

For More details : 607-6118

Pop Songs With Story, by Yim Jinmo, Pop Columnist and Busan Metropolitan Chorus

24th(Thu)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You can walk into your memories. This concert is designed with a story which one can sympathize with. Yim Jinmo, pop columnist and Busan Metropolitan Chorus will lead you to the world of music and memory.

program

Oldies but Goodies/Danny Boy, Moon River, Once Upon A Dream, Cotton Fields

In the Rhythm/Congratulations, Proud Mary, Dancing Queen, YMCA

Scent of beautiful tune/Love Me Tender, Scarborough Fair, Ben, My Heart Will Go On

Favorites Golden Pop Songs/ Beatles Medley, Bridge Over Troubled Water, Yesterday Once More etc.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s : 607-6126, 607-6070

Busan International Beach Dance Festival

31st, July - 6th, Aug, Kwangan Beach, Busan Cultural Center



To the sea of dream, sea of festival! This is a summer festival featured with special stages of beautiful beach, symbol of Busan.

This festival will show diverse dance performances such as traditional Korean dance, sports dance, belly dance, jazz dance, tap dance and etc. of 33 teams from 9 nations like Austria, Switzerland, German, Holland, Korea, US.

Ticket : Free

For More details:www.bibdf.com

뮤지컬 캣츠

이상훈 · 뮤클(뮤지컬&클래식) 운영자

1981년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첫 선을 보인 캣츠는 영국 국립극단 대표를 지냈던 트레버 넌과 너무나도 유명한 뮤지컬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만나 영국 뮤지컬의 전성시대를 연 작품이다. T.S 엘리엇의 우화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에서 그 내용을 뽑아 극을 만들었다.

이제 이 뮤지컬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만큼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캣츠의 초연공연이 올라간 영국 뉴런던 시어터에서 21년간의 장기공연, 그리고 브로드웨이에서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이후 21년간 장기공연 기록을 세운 캣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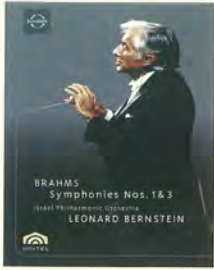
서 최장기 공연작 기록을 세운 7485회, 이웃 도쿄에서 역시 6,000회 가까운 공연기록으로 동경 고탄다에서 현재에도 연일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다. 뉴욕에서 18년 동안 올린 공연 수입만 4억달러에 육박, 뉴욕인구보다도 많은 천만명 이상이 관람했다.

우리나라는 몇 제작사에서 판권없이 공연을 한 예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무대에 올려진 건 1994년 예술의 전당에서의 공연이 처음이었다. 당시 채 한달도 안되는 상연기간동안 대학로의 다른 공연무대가 썰렁할 정도로 그 여파가 컸으며, 한 신문기자가 '수입고양이가 할퀴고간~' 이라는 글의 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2003년 겨울 또 한차례 내한공연 이후, 이듬해 빅타임시어터에서의 공연, 그리고 2007년 다시 극장판으로 한국무대를 찾는다. 이제는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도 적지 않은 규모로 성장했고, 캣츠 공연만으로는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한다. 다만 2~3년을 로테이션으로 국내무대를 찾는 단골 레퍼토리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2000년 국내 한 극단에서 저작권을 무시한채 국내 공연을 올렸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일이 있다. 그렇지만 이후에 뮤지컬을 수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국내 배우들에 의한 시도는 더이상 없다. 최근 스타 시스템으로 흐르고 있는 국내 뮤지컬시장에 캐릭터 중심으로 제법 난이도 높은 춤과 노래, 그리고 무대를 소화해내야하는 이 뮤지컬 캣츠는 쉽지 않은 시도인 모양이다.

극중 유명한 뮤지컬 넘버로는 단연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Memory이다. 많은 팝 가수들의 애창곡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바바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르는 Memory가 가장 압권이다. 이 밖에도 럼뎀터거가 부르는 럼뎀터거 기차역고양이 스킵블샹크스가 부르는 넘버도 극을 보면 기억에 남는다. 개성있는 캐릭터가 꾸미는 다양한 에피소드는 화려한 무대와 볼거리와 함께 관객을 매료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브람스 Symphonies Nos. 1 & 3

연주/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레너드 번스타인)

1958년 12월 13일에 처음 방영을 시작한 저 유명한 '젊은이를 위한 콘서트(Young People's Concerts)' 중 한 장면에서 레너드 번스타인은 청중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바 있다. "무엇이 음악을 심포닉하게 만드는가?" 번스타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브람스 음악에서 찾았다. "브람스는 뛰어난 정원사처럼 자신의 음악을 키워 나갑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팬케이크처럼 선율을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뒤집힌 선율이 아름답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누구라도 선율을 집어내서 거꾸로 뒤집거나, 거꾸로 연주하거나, 두 배쯤 빠르게, 또 느리게 연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과연 아름다운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브람스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브람스 음악에서는 음악이 단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변하기 때문이지요. 그 비밀은 음악을 전개하는 이런 저런 방법을 단지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 앞맞은 지점에서, 즉 음악이 언제나 음악적 표현으로서, 느낌으로서, 감정으로서 기능하는 순간에 쓰인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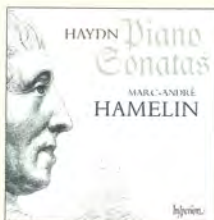
번스타인은 지휘자로서 활동하면서 꾸준히 브람스를 연주했지만 결코 전통적인 브람스주의자이거나 그저 전통적인 습관을 되풀이하는데 만족하는 지휘자가 아니었다. 그가 브람스를 처음으로 지휘했던 것은 1940년, 교향곡 3번을 통해서였다. 그로부터 40년 후, DG에서 녹음한 스튜디오 레코딩에서 번스타인의 브람스는 느린 발달음으로 자신만의 내면세계로 침잠하게 된다. 그러나 (이 DVD가 녹음된) 1973년의 경우, 번스타인은 아직 고전적이고 직선적인 지휘를 보여주며, 브람스 특유의 무뚝뚝한 힘을 통해 브람스 교향곡의 주제적, 화성적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교향곡 제 1번에서는 개인적인 투쟁과 최후의 환희에 이르는 따뜻한 긍정이라는 이 교향곡의 두 세계를 가르는 심연(深淵)에 주목하고 있는 듯 하다. 이 교향곡은 무려 14년에 걸쳐 작곡되었으며, 번스타인은 자신의 연주에서 이러한 작곡가의 노력이 느껴지기를 원했다.



스티븐 이설리스의 바흐 첼로 조곡 & 새의 노래 (2CD)

연주/스티븐 이설리스(첼로)

'첼로계의 학자' 스티븐 이설리스가 그의 이력에 정점이 되는 앨범을 내놓았다. 최근 인디펜던트지에서 '전설적인 재능의 소유자'로 평가되기도 했던 그가 스스로 '완벽함과 송고함의 극치'라고 평했던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의 작업을 예술적 순례의 승리로 종결짓는다. 이설리스가 직접 작성한 이 앨범의 북클릿에는 방대한 학구적인 성찰뿐만 아니라 바흐 조곡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견해도 잘 나타나 있다. 첼로 조곡 전곡과 함께 이 대작을 세상에 부활시킨 '파블로 카잘스'가 즐겨 연주하던 '새의 노래', 바흐의 둘째 부인 안나 막달레나의 필사본을 비롯한 3종의 필사본 연주까지 수록되어 있다. 온난한 선율, 결점 없는 표현력, 눈부시도록 깊고 심오한 이설리스의 기념비적인 새 앨범에 바흐 애호가들은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다.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No. 23, 24, 32, 37, 40, 41, 43, 46, 50, 52(2for1)

연주/마크-앙드레 아믈랭(피아노)

"나는 악기 없는 마법사지만 악기가 가진 힘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다."라고 말한 하이든은 전통적인 피아노 소나타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작곡가다. 경이로운 피아노계의 거장 '아믈랭'은 하이든의 60여개의 피아노 소나타들 중, 실험성과 대중성에 있어서 단연 빼어난 10개의 작품들을 선택하였다. 그의 타건은 진주처럼 반질거리고, 초스피드로 아무렇지 않게 처리해 버리는 16분 음표들의 행적들... 복잡한 텍스처를 가볍게 만들고, 테크니컬한 작품을 명쾌하고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아믈랭만의 재능은 하이든의 천재성을 청자들과 정확하게 직면하게 한다. 아믈랭의 완고한 열정과 독창적인 감각은 그의 화려한 평판을 다시 한번 단단히 뿌리내리게 한다.

※BBC 뮤직 매거진 에디터스 초이스 · 캐나다 포스트 이달의 음반 · 그라모폰 추천음반

■비바체클래식 제공

목수 김씨의 나무 작업실

김진송 지음 / 시골생활 / 343p / 23,000원



〈목수일기〉 〈나무로 깎은 책벌레 이야기〉 등 나무에 관한 책과 현대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쓴 〈인간과 사물의 기원〉을 장 그노스란 이름으로 펴내 온 김진송 씨의 새로운 책. 국문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후 미술평론, 전시 기획, 출판 기획 등의 일을 해오면서 근현대미술과 시각문화, 그리고 현대문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온 저자는 현재 목수일을 하고 있다. 〈목수 김씨의 나무 작업실〉은 2001년에 펴낸 〈목수일기〉의 개정판. 새로 펴내면서 지난 십 년 동안 저자가 직접 작업한 목물의 사진을 선정하여 그간의 흐름을 일괄하여 살피고, 새로운 작업장 짓기 등 몇편의 글을 추가하였다. 나무와 목수 일, 그리고 목물들에 대해 기록해온 일기와 스케치, 작품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단순조립 식의 목공일이 아니라 나무를 구하는 데서부터 목물이 탄생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10여 년 동안 나무를 다루며 적은 목리에 대한 묘사는 김진송 씨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생계수단으로써 목수일의 즐거움과 어려움 등을 솔직히 토로하여 마치 현장에 있는 듯 독자들의 공감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문인의 초상

육명심 글, 사진 / 열음사 / 290p / 20,000원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71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세이집. 육명심 씨는 한국사진계의 중진 중 한 사람으로, 영문학과와 미술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늦깎이로 사진계에 입문했다. 서정주 시인과 박두진 시인에게서 일찌감치 시인의 자질을 인정받기도 한 문학도이기도 하다. 이 책에 실린 사진 한 컷 한 컷들이 대상 문인의 문학 세계와 품새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저자의 이력이 그 깊이까지 담아내는 자양분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육명심의 최고 걸작이자 한국 사진계의 최대의 성과라 일컬어지는 '白民 시리즈'를 통해 그는 인물의 표정을 넘어, '뺨을 찌는 사진 작가'라는 평을 듣기에 이른다.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은 그가 백민을 찌기에 앞선 1970년대 초반, 이 땅 예술가들의 족적을 좇아 '기록하는 일'에 매달린 시기의 작품 중 문학편을 추린 결과물이다. 사진 한 장에서 찌들고 고통스러웠던 일생을 순식간에 감지할 수 있는 천상병, 다소 황량해 보이는 별판을 뒤로 하고 선 신경림 등 한국 문단에서 내로라하는 문인 71인의 120여 컷에 달하는 사진촬영 당시의 일화와 주인공의 문학 세계를 스케치해 덧붙였다. 일명 '사진으로 돌아본 문학사'다.

유럽장인들의 아틀리에

이지은 지음, 이동섭 사진 / 한길아트 / 407p / 23,000원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 최초의 '오브제아트 감정사'로 활동 중인 이지은 씨의 저서. 우리에게 낯선 직업인 '오브제아트 감정사'란 유리와 가구, 청동, 은 등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공예품의 진위를 판별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지은 씨는 그 중에서도 물건의 역사를 추적해 문서화하고 객관화해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다큐멘털리스트다. 이 책은 저자가 '크리스티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만난 장인들과 그들을 통해 알게 된 유럽 최고 장인 15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장인, 그들의 지식은 책에서 읽는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한 살아 있는 것들이다. 저자는 장인들의 아틀리에를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체득한 기술 속에는 결국 인간의 창의력과 감각 그리고 가슴이 합쳐져야 구현될 수 있는 어떤 경지가 있다는 것을 배웠고, 거기서부터 그 매력적인 세계를 향한 탐구의 여행을 시작하였노라고 고백한다. 이 책에는 옛 기술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기술을 보여준 열다섯 장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박현주 · 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바티칸에 올려퍼진 천상의 선율 부산시립합창단, 아시아 합창단 최초로 바티칸 공식미사에서 연주

6월 13일~6월 23일 바티칸, 로마에서 7회 공연



성 베드로 성당 공식 미사에 참가한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이 로마 음악협회(로마인칸토) 초청으로 바티칸 시국과 로마를 방문,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천상의 선율을 선사했다.

6월 13일 9박 11일의 일정으로 이태리 연주길에 오른 부산시립합창단은 6월 14일 로마 도착과 함께 가톨릭의 총본산인 성 베드로 성당 공식미사에 참가해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1990년 이후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곡을 노래한 동양권 합창단이 없었던 터라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미사를 진행한 호마스트리 대주교를 비롯 성염 주바티칸 한국 대사, 가톨릭 신자들은 부산시립합창단이 연주한 Kyrie(Josef Gabriel Rheinberger), Ave Maria(A.Bruckner), Ave Verum(C.Saint-Saens), Sanctus(C.Courtney), Ubi Caritas, Laudate Dominum(W.A.Mozart)에 만족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부산시립합창단은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연주에 이어 로마에 머무는 동안 판테온신전 광장(15일), 콜로세움 광장(16일), 알레시오 성당 공연홀(17일, 600석), 알첼리오 성당 광장(18일), 로마한인교회 공연홀(20일), 스페인 광장(21일)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공연을 가져 우리 교민과 이태리인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리랑, 도라지 타령, 한강수 타령, 경북궁타령, 고향의 봄, 보리밭 등 우리민요, 우리가곡이 이태리에서 울려 퍼지면서 문화도시 부산과 부산시립합창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부산시립극단 '찾아가는 예술단' 문화나눔 공연 인기



평소 연극을 접하기 어려운 부산시민들을 위하여 6월 한 달 동안 '2007 찾아가는 연극'을 선보인 부산시립극단이 공연 마다 부산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6월 16일 금곡 청소년수련관 공연을 시작으로 소년의집(18일), 공창종합사회복지관(19일),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20일), 한국철도청 부산지사(21일), 동의의료원(22일), 부산보훈병원(25일)에서

공연을 가진 부산시립극단은 문화소의지역에서 관객들을 가까이 만나 시민들에게 연극적 재미를 선사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은 2007년 첫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린 프랑스 극작가 몰리에르의 '수전노'. 150여명이 찾은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 공연에서는 원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극단 단원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악 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가진 보훈병원 공연에서는 210명의 관람객들이 '수전노'를 보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2007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공연 개최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 재단이 공동으로 부산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 공연을 가졌다.

지난 6월 15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처음으로 열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회에서는 부경대, 신라대 등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230여명이 참가, 우리 음악을 들으며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에 이어

6월 22일에는 부산시립무용단이 덧튼춤, 사랑가, 설장고춤, 춘접무 등으로 아름다운 우리 춤사위를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부산시에서는 오는 9월 10일, 10월 19일, 10월 24일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시카고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 부산문화회관 방문



지난 6월 15일 부산의 자매 도시 시카고 교포 자녀들로 구성된 '시카고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단장 오신애)'이 부산문화회관을 방문,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춤사위를 선보였다.

시카고 리틀 올 예술단의 부산공연은 5월 7일 부산시와 시카고 시 간의 자매결연 이후 두 도시간의 문화 교류 차원에서 성사되

었다. 시카고 리틀 올 예술단은 관광공사와 시카고 지사의 주선으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첫 공연을 가진 뒤 센텀초등학교, 문화회관 등에서 공연을 가졌다. 교포 3세들로 구성된 '시카고 리틀 올 코리아 예술단'은 미국내 유일한 어린이 홍보 사절단으로 미국 내에서 한국을 알려왔다.

● 제 17기 어린이 한국춤 교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하는 어린이춤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린이들이 유년기부터 우리 춤을 직접 추고 익혀봄으로써 한국적 정서와 심성을 가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입니다.



□강습기간 : 2007년 7월 23일(월) ~ 7월 27일(금) (5일간)

□강습내용 : 어린이 강강수월래, 태극부채춤

□강 사

- 어린이 강강수월래- 이윤희(훈련지도자), 이현숙
- 태극부채춤 - 서정숙(총무), 정진희

□대상 및 인원 : 초등학교 어린이 / 각 반 30명(선착순 마감)

□준 비 물 : 태극부채춤반 - 태극부채

□접수기간 : 2007년 7월 9일(월) ~ 2007년 7월 13일(금) (5일간, 평일 10:00~18:00)

□전화접수 : 부산시립무용단 사무실(607-6118, 6120)

□강습결과발표회 : 2007년 7월 27일(금) 13:00~14:00 / 국제회의장

*그동안 강습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발표식을 가짐.

□강 습 료 : 10,000원

● 제 28회 시민무용교실

한국 무용의 실기 강습을 통해 일반 시민의 우리 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무용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위해 시민무용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습기간 : 2007년 7월 23일(월) ~ 7월 27일(금) (5일간)

□강습내용 : 합죽선 산조춤, 소고춤

□강 사

- 합죽선 산조춤 - 이윤희(훈련지도자), 이현숙
- 소고춤 - 서정숙(총무), 정진희

□대상 및 인원 : 일반 시민 및 교사 각 반 30명(선착순 마감)

□준 비 물 : 합죽선 산조춤-합죽선 / 소고춤 - 소고

□접수기간 : 2007년 7월 9일(월) ~ 2007년 7월 13일(금) (5일간, 평일 10:00~18:00)

□전화접수 : 부산시립무용단 사무실(607-6118, 6120)

□강습결과발표회 : 2007년 7월 27일(금) 13:00~14:00 / 국제회의장

*그동안 강습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발표식을 가짐.

□수 강 료 : 20,000원

● 제16기 시민국악교실

부산시민의 정서함양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 16기 시민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교과별 내용

과 목	인 원	실 기 내 용	비 고
단소반	30명	○독보법 ○악기 소리내는 방법 실기지도	1일 2시간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됨
장구반	30명		

□강습대상 : 부산시내 초, 중, 고교 교사 및 학생, 일반인

□강습기간 : 2007년 7월 23(월) - 8월 3(금) / 10일(토, 일요일은 휴강)

□강습시간 : 오전 10:00 - 12:00 (1일 2시간)

□강 사 : • 단소반 - 채수만(국악관현악단 수석)
• 장구반 - 전학수(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수강료 : 20,000원(교재비 포함)

□수강생 신청서 배부및 접수 : 2007년 7월 9일(월) - 7월 18일(수) 오후 6:00까지

*토,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제 8기 여름 연극교실

□강의시간 및 내용

	30일(월)	31일(화)	8/1일(수)	2일(목)	3일(금)	4일(토)
1교시 10:00~10:50	개강식 연극의이해 (손기룡)	화술 (염지선)	상황연기 (임해련)	즉흥연기 (이혁우)	신체훈련 (김은희)	리허설
2교시 11:00~11:50	즉흥연기 (이혁우)	신체훈련 (김은희)	장면연기 (유성주)	화술 (염지선)	상황연기 (임해련)	장면발표 & 수료식
점 심 시 간						
3교시 13:00~13:50	작품분석 (유성주)	'수전노' (임해련, 김은희, 유성주, 이혁우, 염지선)	'수전노' (임해련, 김은희, 유성주, 이혁우, 염지선)	'수전노' (임해련, 김은희, 유성주, 이혁우, 염지선)	'수전노' (임해련, 김은희, 유성주, 이혁우, 염지선)	
4교시 14:00~14:50	'수전노' 장면나누기					

□강습대상 : 부산시내 중, 고생, 대학생 및 일반인

□강습기간 : 2007년 7월 30(월) - 8월 4(토) 시립극단 연습실 및 국제회의실

□강 사 :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및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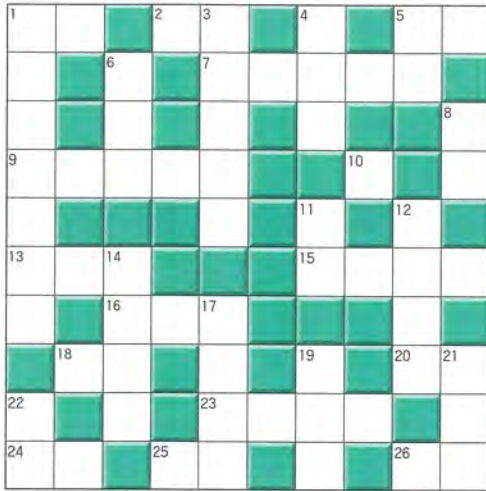
□수 강 료 : 20,000원(교재비 포함)

□수강생 신청서 배부및 접수 : 2007년 7월 16일(월) - 7월 26일(목) 오후 6:00까지

*토,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6136~8)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문제

1. 근대 조각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프랑스의 조각가, 대표적으로 지옥의 문, 청동시대, 생각하는 사람 등이 있다.
2. 2008년 영화 '브로큰백 미운털'으로 동양계 감독으로서 최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대만 출신의 영화감독.
5. 편지를 주고받으며 시귀는 벗.
7. 자동차에 액정모니터와 GPS(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설치,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최적경로 등을 확인해 초행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
9. 오드리 헵번에게 아카데미상을 안겨주며 오드리 신드롬을 낳게한 오드리 헵번, 그레고리 픽 주연의 영화.
10. 연극의 단락을 세는 단위. 하위 단위인 장(場)으로 구성된다.
13. 바이올린보다 조금 크고 네 줄로 되어 있으며, 소리는 어둡고 둔하다.
15. 이탈리아의 작가 콜로디(Colodi, C.)가 지은 동화에 등장하는 나무인형.
16. 한국 서구근대화의 화풍을 도입하는 데 공헌한 서양화가. 담백한 은박지에 송곳으로 긁어서 그린 선화(線畵)는 표현의 새로운 영역의 탐구로 평가된다. 대표작으로 '소', '흰소', '바닷가의 아이들' 이 있다.
18. 대기 중에 소량으로 존재하는 가스 상체의 원소. 빛깔도 냄새도 맛도 없으며, 화학적으로

불활성이어서 화합물을 거의 이루지 않는다. 방전관에 넣으면 아름다운 색을 내므로, 전구 및 광고용 시인으로 널리 이용한다.

20. 포도주.
23. '복장'을 뜻하는 '코스튬(costume)'과 '놀이'를 뜻하는 '플레이(play)'의 합성어인 코스튬 플레이를 줄인 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중스타나 만화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하여 복장과 헤어스타일, 제스처까지 흉내내는 놀이이다.
24.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미리 독자에게 던지시 암시하는 서술.
25. 최정판택의 물막과 재기과정! 경상남도 하동군 평사리와 간도의 웅장, 그리고 진주와 서울 등 도시를 무대로 펼쳐지는 작가 박경리의 대하소설.
26. 2007년 칸느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도연, 송강호 주연, 이창동 감독의 영화.

세로문제

1. 지난 4월 27일 타계한 첼로의 거장.
3. 독일군 점령하의 암스테르담에서 나치스의 박해를 피해 은신처에 숨어있던 유대인 소녀. 네가 나치스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2년여동안 싸웠던 일기.
4. 막대기 모양의 기다란 프랑수아 빵. 갈김질이 단단하여 씹으면 파삭파삭 소리가 난다.
5. 호열의 합리성과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를 갖춘 새로운 숙박 시설. 원래 연금(年金)의 뜻으로 유럽에서 노인들이 여생을 연금과 민박 경영으로 보내는 데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6. 고대 중국에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던 장치.
8.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는 7현으로 된 우리나라 현악기. 활로 줄을 튕질러 연주하는데, 현악기 가운데 가장 좁은 음역을 가진 저음 악기이다.
11. 독특한 향기가 있어 차의 원료로 널리 애용되며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12. 태평양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일본의 도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14.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전용뮤지컬 극장인 사뮈타씨어터에서 정기공연에 들어가 오는 8월 31일 국내 최장기 연속 공연 기록을 수립하게 되는 화제의 뮤지컬. 어린 사자 '심바'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까지 벌이는 모험과 사랑의 이야기이다.
17. TV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영화 '단적비연수' 등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진 제주도 서귀포 시 신양리에 있는 아름다운 해안. 재세(才臺)가 많이 배출되는 지세란 뜻의 OO와 곶을 뜻하는 제주방언 OO가 합쳐진 말이다.
19. 인간 운명의 부조리, 인간 존재의 불안을 통찰하여, 현대 인간의 실존적 체험을 극한에 이르기까지 표현하여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받는 유대계 독일작가. 대표작으로 '변신', '심판' 등이 있다.
21. 오대양의 하나.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대륙과 남극 대륙에 둘러싸여 있다.
22. 일년 중 가장 더운 날인 삼복(三伏) 중 첫 날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마려해 세끼이나 산에 놀러가는 풍습이 있다. 올해는 7월 15일.

지난호 정답

인	천	혼	배	한	비	아
지	문	보	드	카	열	
이	창	다	민	장	한	몽
조	지	원	스	터	거	
바	구	팅	모	나	리	자
오	리	온	김	플	격	
밥	난	중	일	가	래	루
나	화	덕	혜	옹	주	
무	크	첩	민	산	조	
		김	영	임	서	태
					지	

- 신아리꿈터(구.문방블패)
 - 김은화(서구 아미동 27)
 - 문소영(사상구 주례3동)
 - 김영규(사하구 신평동)
 - 이순애(남구 대연5동)
 - 김명숙(해운대구 우1동)
- 가미골 소극장 초대권
 - 김해권(연제구 거제2동)
 - 김도일(사하구 신평동)
 - 김솔마(부진진구 부진1동)
 - 이순이(사하구 정림동)
 - 김민주(사상구 주례동)
- 큰집 식사권
 - 박정조(사하구 감천 2동)
 - 예계남(영도구 청학동)
 - 김신자(서구 압남동)
 - 이영희(사하구 감천 1동)
 - 우항화(사하구 신평2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 윤은혜(사하구 신평동)
 - 김현진(해운대구 좌동)
 - 정규래(사하구 정림2동)
 - 우다영(연제구 거제3동)
 - 장우석(해운대구 좌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셀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미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신실

가미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산마루골터

· 짬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UN로터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 611-4040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양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7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부산시립극단 '칼맨'

칼을 든 사람들의 이야기 '칼맨', 그러나 결코 서늘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의 훈훈한 이야기로 풀어 나가는 시립극단 출연진에 박수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칼을 들었다고 자신의 힘을 뜻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합, 사랑을 위하여 칼날을 자신에게 향하고 사는 주인공 정육점 주인(배우 이돈희)의 겸손하면서도 확실한 의미를 전달해주신 연기에 혼자만의 관람이 아까워 다음날 우리반 친구들 4명을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등록하였습니다. - 나덕실 -

부산시립무용단 '이쁜이 시집가는 날'

지난 해 공쥐 팔쥐를 보고 언제 5월이 되나 했더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군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딸과 앉아있노라니 하얀 꽃을 든 선녀들과 온화한 음악, 그리고 신비로운 조명. 모두가 어우러지며 눈이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니 뭐니 해도 제 3막 백년가약. 고운 마음을 가진 이쁜이가 미연과 이루어지는 장면은 눈물겹기도 하고 하얀 인연의 끈을 놓지 말았음 하는 바람이 들었어요.

무대도 너무 멋졌구 음악, 의상... 모두들 피땀으로 이루어진 공연이라 생각해요. - 박혜경 -

영화 '기묘'

아들을 잃고 하루하루가 미칠 것 같던 내(이신애 - 전도연 분)가 하나님 사랑에 은혜 입어, 원수를 사랑 하라는 말씀을 따라, 범인을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전하러 교도소까지 찾아왔다.

정작에 그는 평화스럽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으며, 하루하루가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한다. 거의 모든 것을 (납편, 재산, 아들...) 상실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라는 거... 아들을 죽인 범인은, 용서받았다고 편안한 얼굴로 내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 아직은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누가...언제...어떻게... - 이은숙 -

새로운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와 'Q&A'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와 'Q&A' 질문과 답변은 예술예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 후기를 보내주신 분중 3명을 선정하여 모짜르트 2인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과 함께 한 6월 테마여행 금관5중주 선율에 취한 초여름 여행



6월 8일, 테마여행을 떠나는 설렘을 안고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이 부산문화회관에 모였다. 오늘의 테마여행지는 된장과 들꽃으로 유명한 통도사 서운암, 그리고 오후에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의 전경을 즐길 수 있는 테즈락 크루즈가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좀처럼 누릴 수 없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의 선상음악회까지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때 보다 회원들의 표정이 밝기만 하다.

한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서운암은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인 통도사의 암자 중 한 곳. 서운암 주변 20여만평 야산에 1백여종이 넘는 야생화가 심어져 있어 야생화가 가장 많이 피어나는 4월이면 매년 들꽃축제가 펼쳐진다. 6월이라 대다수 봄꽃들이 모습을 감춰 아쉬웠지만 우리 일행을 제외하고는 방문객이 거의 없는 한적한 산사의 여유로움을 즐기며 본격적인 들꽃기행에 나섰다.

오늘의 들꽃기행에는 손지운 숲해설사가 함께 동참했다. “괭이밥 삶은 물은 아토피 피부에 아주 좋아요... 연고인 마데카솔에 그려져 있는 풀이 바로 이 피박이예요...” “냉이꽃을 흔들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하~” 들꽃에 얽힌 유래와 약초의 효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비슷한 들꽃도 서로 비교해가며 하나라도 농칠세라 열심히 필기하는 회원들의 열정에 초여름의 뜨거운 햇살도 한풀 꺾이는 듯 했다.

통도사 입구 식당에서 맛있는 산채비빔밥과 회원 최찬

조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방울토마토로 디저트까지 먹은 회원들은 통도사 절 내를 거닐거나 맑은 개울 물에 발을 담그고 정담을 나누기도 했다.

오후 3시 30분에 출항하는 테즈락 크루즈를 타기 위해 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정기회원들은 다소 들뜬 표정으로 탑승을 시작했다. 드디어 출항.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팀이 연주회장으로 탈바꿈한 식당에서 정기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인 이반 네델체프(혼), 드리트리 로카켄코프(트럼펫), 안명기(트럼펫), 정선화(트럼본), 송인봉(튜바)과 조용길(세트드럼) 씨가 정기회원들을 위한 오늘의 연주회에 기꺼이 참석했다.

항해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됐다. 수자의 경쾌한 '워싱턴 포스트 마치'를 시작으로 멕시코 음악 모음곡, 영화음악 '오브 더 레인보우' '메모리' '문리버', 팝송 'Tied A Yellow ribbon round the ole oak tree' 등 연주가 이어지자 회원들은 선상 밖의 풍경은 나 몰라라 연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트럼본 연주로는 듣기 힘든 '썸머타임'을 정선화씨의 연주로 들으면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영화 '미션임파서블' 주제곡을 연주하자 회원들은 박수로 박자를 맞추면서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기도 했다. 해설을 맡은 안명기 씨는 유머넘치는 진행으로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시간 가까이 진행되던 연주회는 앵콜곡인 상송 '에레스푸'와 가요 '남행열차'를 마지막으로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다. 연주회로 놓쳤던 풍경도 감상하고 그새 친해진 회원들끼리 정담도 나누는 사이 배는 90분의 항해를 마치고 어느새 연안여객터미널로 들어섰다.

들꽃과 바다와 음악이 공존한 하루, 정기회원들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이었다.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7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10명을 추천, 1인 2명에게 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천,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발 표 : 7월 25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 〈예술에의 초대〉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정기회원 여러분들에게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8월 10일(금) 비봉내와 함께하는 여름 여행

사천의 깨끗한 자연 속에서 자란 비봉내 대나무 마을에서 즐기는 대나무 숲 산책과 별주부전의 고장 비토리 앞바다로 떠나는 무인도 대탐험.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30 비봉내 팜스테이 도착
대나무 숲 산책 및 대피리만들기
- 14:00 무인도 탐험
- 16:00 비봉내 팜스테이 출발
- 17:30 부산문화회관 도착



▶ 9월 14일(금) 남해 독일마을, 문항갯벌 체험

늦여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갯벌에서 맞는 테마여행.
남해의 또다른 풍광 '환상의 커플' 촬영지 독일 마을에서 느껴보는 늦여름, 갯벌에서 체험하는 조개잡이는 또 다른 재미.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30 남해 독일마을 도착
- 13:00 문항갯벌 도착 갯벌 체험
- 15:10 남해출발 (상기일정은 현지 교통사정 및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먼 관계로 출발시간이 빠르게 도착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7월 당첨자

▶ 7월 13일(금)

석남사, 배내골 팜스테이마을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이순희(양산시 웅상읍)
박광룡(해운대구 좌동)
박동욱(수영구 광안4동)
백춘화(동래구 사직2동)
홍경식(연제구 연산9동)
전태우(중구 중앙동)
김태희(남구 용호1동)
김기명(부산진구 초읍동)
김희숙(남구 문현3동)
김윤화(서구 아이동)

■ 기존가입 당첨자(업서) 명단(10명)

최은심(해운대구 좌동)
송연진(해운대구 우1동)
이은진(사하구 감천1동)
하윤자(서구 동대신동 2가)
배휘(사하구 구평동)
이청자(연제구 연산4동)
최미희(해운대구 좌동)
이재금(금정구 장전동)
고숙경(연제구 거제1동)
김지선(해운대구 좌동)

WELCOME TO "HANULCHE"

자연과 사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 "하늘채"가 있습니다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순수한 자연환경과 유엔평화공원이 내집 정원인 곳

멋진 광안대교 야경까지 당신이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코오롱
하늘채로
구경오세요**

- 하늘채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방문사은품을 드립니다.
- 이벤트1, 1인 3천여명의 대단지를 골프장 커트로 구경하러
- 이벤트2, 볼록에 물든 자연의 향연 - 하늘채에 펼쳐집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품격이 있습니다

- 전세대 3bay · 4bay구조** 개방감 및 채광은 물론 우수한 환기까지, 광폭발코니 적용으로 공간활용을 자유롭게.
- 컬러테라피 아파트** 국내 최초로 컬러테라피 개념을 주거에 도입, 입주기구별 맞춤 컬러상담 주거공간 연출
- 최상층 전세대 다락방**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최상층에 다락방을 설치하여 우수한 전망과 가치를 드립니다.
- 전세대 남향 배치** 하늘채는 전세대 남향(남동, 남서향)배치로 일조권과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 테마공원형 단지설계** 지형을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 첨단건설기술로 단지 전체를 공원화 하였습니다.



코오롱건설(주)

33평형 / 33평형A형 / 46평형 / 56평형 총 712세대

문의 051)703-1003

※상기 이미지는 2007년 4월 20일 코오롱하늘채를 실제로 촬영한 것으로 가료들은 이미지 처리한것입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7월 토요일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7월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전통춤 공연



춘광 여정

□ 멋든춤(춤/김주영)

한국 신무용사의 선구자 최승희류의 부채춤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창작화시킨 매혹적인 춤.

□ 소고춤(춤/정진희, 허태성)

농악에서 벼구놀음의 독특한 춤사위와 가락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무대화시킨 춤. 경쾌하고 절도있게 물아치는 장단 위에 역동적인 진행이 흥에 겨워 생동감이 넘친다.

□ 춘광여정(춤/권봉정, 김공주, 정수민, 박창희, 오수연)

봄은 빛과 소리, 그리고 색깔의 계절이다. 화창한 봄빛을 맞으며 다시 만난 자연 속에서 나물을 바꾸니 가득 깨어든 여인들의 아리따고 발랄한 춤사위는 봄의 생명력과 환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 훈령무(춤/이정식)

훈령무는 1930년 故한성준 선생이 구군의 훈련 장면을 보고 이를 무용화시킨 춤이다. 훈련에 임하는 훈령의 비장한 각오가 절제된 춤사위로 표현되는 훈령무는 일사불란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들을 통해 강인한 무적(武的) 기상이 넘쳐난다.

□ 성주허튼춤(춤/김동숙)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한 후에 다시 성주를 받아들이는 성주굿에서 무당이 복을 빌어 부르는 노래인 성주풀이에 맞춰 추는 허튼춤으로 한국춤의 기본형과 기복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開 화중지선(춤/서정숙, 서연미, 오숙례, 강미향, 황선희)

• 악사 - 상쇠/장래훈(수석), 장고/이창규, 북/이성원(수석), 징/김윤호

부산국제해변무용제를 빛내는 해변의 꽃을 표현하는 이 작품은 새하얀 꽃송이를 들고 아름답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그려낸다. 부산국제해변무용제의 도약을 표현하는 영남농악의 신명난 가락과 어우러져 꽃송이를 든 여인들의 청초함은 대조를 이루는 듯, 조화를 이루는 듯, 순결한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관객의 가슴 속에 박동친다.

※ 안무/홍기태 ※ 훈련지도/이윤희 ※ 해설/박소윤

• 입장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7월 14일, 21일, 28일 토요일 상설무대는 무대공사 관계로 공연을 쉽니다

Vivace Classic (클래식음반 전문매장)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낭만을...
(비바체클래식은 클래식 CD와 DVD 그리고 LP를 취급하는 전문매장입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단, 예술예의초대 쿠폰과 정기회원카드 함께 제시)

☎ 051)743-0003
www.vivaceclassic.co.kr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예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 협력업체 이용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필하모니, 가마골소극장, 부산아쿠아리움 등)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19, 51-1, 68,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 무료운행

출 발 지 : 7번가 피자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지점)

출발시간 : 오후 7시(공연이 있는 날에 한함)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초대 담당자앞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초대 담당자앞

-

2007 SUMMER

시원한 기적으로 뽀진 휴가를 보내자!!

여름 휴가여행

[부산 ↔ 괌, 세부 직항] 편안한 직항 노선 이용, 최고의 휴양지로~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www.tourfun.co.kr

NAVER 투어펀™

가장 인기 있는 여름 여행

[세부 직항]

세부/아일랜드 호핑투어 4일

포함내용 **66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디스커버리투어, 호핑투어 (섬일주+줄남사+스토콜름+씨푸드) 시내관광, 특식 2회, 여행자보험

초특급

후아힌 여행 4일

포함내용 **83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리조트 내 자유시간, 마젤란십자가, 성어거스틴 교회, 특식 1회 (샤브샤브), 여행자보험

[괌 직항]

괌 아웃리거 리조트 4일

포함내용 **88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해양수족관, 리조트 내 자유시간, 괌 시내관광, 특식 2회, 여행자보험

테마파크 여행

국내 테마파크여행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2일

포함내용 **142,000원~**

왕복교통, 팁포함,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캐리비안베이 자유이용권, 사파리월드, 숙박비, 식사 2회

일본속의 네델란드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북큐슈 온천 3일

포함내용 **499,000원~**

코비왕복, 팁포함, 부두세, 온천욕 체험, 태재부 천마궁, 하우스텐보스 1일 패스권, 후쿠오카 시내관광, 여행자보험

천의 얼굴을 가진

홍콩/해양공원/디즈니랜드 4일

포함내용 **75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해양공원, 리펠스베이, 빅토리아 파크, 침사추이, 디즈니랜드 1일 패스권, 여행자보험

프리스타일 자유여행

후쿠오카 프리스타일 2일

추천일정 **219,000원~**

하우스텐보스 - 텐진 변화가 쇼핑 - 캐널시티 - 나카스 (아타이포장마차) - 100엔샵 - 전자상가
포함 : 코비왕복, 숙박, 안내자료, 샌딩서비스

홍콩 프리스타일 3일

추천일정 **449,000원~**

침사추이 - 몽콕야시장 - 빅토리아 피크 야경관광 - 점보레스토랑 - 리펠스베이 명품쇼핑 - 마카오 쇼핑
포함 :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샌딩서비스

동경/오사카 프리스타일 5일

추천일정 **589,000원~**

오사카성 - 난바 - 나라 - 교토 - 유니버살 스튜디오 - 동경 - 오다이바 - 디즈니랜드 - 신주쿠 - 우에노
포함 : 왕복항공, 오사카동경 숙박4일, 안내자료

미리 준비하세요

최석연의 여름 여행

최적의 휴양지

9.21(금) 출발

방콕/파타야/타이거주 5일

포함내용 **989,000원~**

왕복항공, 팁포함, 호랑이공원, 티파니쇼, 입체영상관, 미니시암, 산호섬, 왕궁 및 수상가옥, 특식 2회, 여행자보험

아름답고 위대한 경관

대만/야류/화련/101빌딩 4일

포함내용 **789,000원~**

왕복항공, 팁포함, 고궁박물관, 야시장, 야류해양공원, 양명산 온천, 101빌딩, 화산협곡, 태로각협곡, 여행자보험

세계 3대 해변

마닐라/보라카이 5일

포함내용 **1,23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오일맛사지, 필리핀 문화체험, 리조트 내 자유시간, 바나나보트 1회, 특식 1회, 여행자보험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함께하는

큰데식은 내친구

마림바 · 박혜령

2007. 8. 22 (수) 오전 11시 /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동주최 | 부산광역시 | 부산일보사

후원 | 문화마을 하늘재

공연문의 |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 www.bsculture.busan.kr

입장권 | 10,000원 (앞선 예매로 좋은 좌석은...)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까지 20% 할인 (단, 홍보부 전화예약 후 입금 회원에 한함)

국립발레단과 함께 하는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공연

Swan Lake
백조의 호수

- 국립발레단 전단원과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교향악단인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총출연하는 메머드 공연!
- 파리오페라발레단 동양인 최초의 솔리스트,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용걸 초청 특별공연!

» 2007년 **8월 25일(토) 오후 7시**
26일(일) 오후 4시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 예술기획 0505.700.9798, 국제신문 문화사업부 500.5222